#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5. 11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머 리 말

세계 경제는 2011년 이후 4년째 3% 초 · 중반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 역시 지난 6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에 머물러 있다. 특히 금년에는 내수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까지 겹치면서 수출마저 크게 감소하여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였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다. 내년에도 이러한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의 경우 시장이 포화되고 성장 동력이 소진되어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으로 성장세가 낮아졌다. 특히 손해보험의 성장세 둔화가 매우 빠르다. 이러한 가운데 상품 및 가격규제 자율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이제는 보험회사 생존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 IFRS4 phaseII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금융업권 간 융 · 복합화, 핀테크 기술 및 빅 데이터 활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먼저 경영전략의 경우 목표를 기존의 시장 점유율 확대 또는 단기 수익 추구에서 장기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자본 관리, 상품 개발, 자산 운용 등도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규제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업계 전체의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가격 자율화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쟁을 강화할 것이며 이에 보험회사는 전문화 · 효율화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변화로 인해 중 · 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대형 보험회사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시장 확보 및 생존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판매자 책임 강화와 금융교육을 통한 보험산업 신뢰 회복도 매우 중요하다. 금융업 간 융 · 복합화에 대해서는 보험산업의 위험평가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며 핀테크와 빅 데이터의 경우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겠다.

보험연구원은 제도 · 감독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담고 있다.

본 보고서가 보험업계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하며 보고서 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향분석실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5년 11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강 호**

# 목차

요 약 / 1

Ⅰ. 경제동향과 전망 / 12
1. 세계 경제 / 12
2. 국내 경제 / 21
3. 국내금융시장 / 35

Ⅱ. 국내보험시장 / 41
1. 생명보험 / 41
2. 손해보험 / 56
3. 보험산업 종합 / 71

Ⅲ. 보험산업 경영과제 / 74
1. 저성장 고착화 대응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74
2. 금융개혁 체계적 대응 / 76
3. 중·소형 보험회사의 성장전략 모색 / 81
4. IFRS 준비 강화 / 82
5. 금융 융·복합화 대응 및 핀테크, 빅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노력 / 84

| 부록 | / 89

# 표 차례

〈표 Ⅰ-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13
〈표 Ⅰ-2〉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 20
〈표 Ⅰ-3〉 국내 실물경제 동향 및 전망 / 22
〈표 Ⅰ-4〉 고용시장 동향 및 전망 / 31
〈표 Ⅰ-5〉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32
〈표 Ⅰ-6〉 대외거래 전망 / 35
〈표 Ⅰ-7〉 기준금리 / 36
〈표 Ⅰ-8〉 금리 및 환율 전망 / 40
〈표 Ⅰ-9〉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종합 / 40
〈표 Ⅱ-1〉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 전망 / 49
〈표 Ⅱ-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종합 / 53
〈표 Ⅱ-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58
〈표 Ⅱ-4〉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 60
〈표 Ⅱ-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62
〈표 Ⅱ-6〉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 67
〈표 Ⅱ-7〉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 69
〈표 Ⅱ-8〉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 71
〈표 Ⅱ-9〉 보험침투도 전망 / 72
〈표 Ⅱ-10〉 보험밀도 전망 / 73

# 그림 차례

〈그림 Ⅰ-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 12
〈그림 Ⅰ-2〉 달러 대비 유로화와 엔화 추세 / 16
〈그림 Ⅰ-3〉 미국, 유로, 일본 국채 수익률 추이 / 16
〈그림 Ⅰ-4〉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이(1960~) / 19
〈그림 Ⅰ-5〉 일본 경제성장률 추이(1950~) / 19
〈그림 Ⅰ-6〉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1980~) / 19
〈그림 Ⅰ-7〉 수출 증가율과 상하이 종합 주가지수 추이 / 19
〈그림 Ⅰ-8〉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 미국 국채 수익률, 원/달러 추이 / 20
〈그림 Ⅰ-9〉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 21
〈그림 Ⅰ-10〉 경제성장 기여도 추이 / 22
〈그림 Ⅰ-11〉 전세가격 상승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월세비중 / 23
〈그림 Ⅰ-12〉 소비자심리지수 및 가계대출 증가율 / 23
〈그림 Ⅰ-13〉 가계소득 비중 및 가계소득, 기업소득 증가율 / 24
〈그림 Ⅰ-14〉 부채상환지출 증가율과 평균소비성향 / 25
〈그림 Ⅰ-15〉 기업재고율, 평균가동률, 설비투자 조정압력 / 26
〈그림 Ⅰ-16〉 민간소비, 수출,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 26
〈그림 Ⅰ-17〉 기업 유형자산 증가율과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 27
〈그림 Ⅰ-18〉 주요 선진국, 중국, 우리나라의 GDP대비 민간부채 추이 / 28
〈그림 Ⅰ-19〉 GDP대비 가계, 기업, 정부부채 추이 / 28
〈그림 Ⅰ-20〉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 / 30
〈그림 Ⅰ-21〉 취업자 증가율 추이 / 30
〈그림 Ⅰ-22〉 근원인플레이션율 / 32
〈그림 Ⅰ-23〉 글로벌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32
〈그림 Ⅰ-24〉 수출입 증가율과 상품수지 추이 / 33
〈그림 Ⅰ-25〉 수출 증가율과 수출단가 증가율 / 34
〈그림 Ⅰ-26〉 수입 증가율과 수입단가 증가율 / 34
〈그림 Ⅰ-27〉 한국 · 미국 국채 수익률 추이 / 37
〈그림 Ⅰ-28〉 국고채 수익률 곡선 추이 / 37

# 그림 차례

〈그림 Ⅰ-29〉 회사채 순발행 현황 및 우량물 발행비중 / 37
〈그림 Ⅰ-30〉 스프레드 추이 / 37
〈그림 Ⅰ-31〉 코스피 및 글로벌 주가 / 38
〈그림 Ⅰ-32〉 외국인 주식순매매 및 보유비중 / 38
〈그림 Ⅰ-33〉 주요국 실질실표환율 / 39
〈그림 Ⅰ-34〉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 추이 / 39
〈그림 Ⅱ-1〉 개인보험 보장성 및 저축성보험 비중 추이 / 41
〈그림 Ⅱ-2〉 보장성보험 보험료 성장률 추이 / 42
〈그림 Ⅱ-3〉 보장성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 / 43
〈그림 Ⅱ-4〉 보장성보험 성장률과 수입보험료 전망 / 45
〈그림 Ⅱ-5〉 일반저축성보험 성장률 추이 / 46
〈그림 Ⅱ-6〉 1인 가구 추이 / 47
〈그림 Ⅱ-7〉 가계 금융자산 비중 추이 / 47
〈그림 Ⅱ-8〉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47
〈그림 Ⅱ-9〉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 49
〈그림 Ⅱ-10〉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추이 / 51
〈그림 Ⅱ-11〉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 52
〈그림 Ⅱ-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 54
〈그림 Ⅱ-13〉 명목GDP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 54
〈그림 Ⅱ-14〉 상해 · 질병, 저축성 원수보험료 / 57
〈그림 Ⅱ-15〉 재물, 운전자 원수보험료 / 57
〈그림 Ⅱ-16〉 개인연금 보험료(월별) / 59
〈그림 Ⅱ-17〉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 59
〈그림 Ⅱ-18〉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분기별) / 60
〈그림 Ⅱ-19〉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비중 / 60
〈그림 Ⅱ-20〉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 60
〈그림 Ⅱ-21〉 대당경과보험료 추이 / 61
〈그림 Ⅱ-22〉 수입차비중과 대물담보 가입금액 / 61

# 그림 차례

〈그림 Ⅱ-23〉 자동차보험 온라인 채널 비중 / 62
〈그림 Ⅱ-24〉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및 고가차량 비중 / 62
〈그림 Ⅱ-2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62
〈그림 Ⅱ-26〉 최근 담보별 손해액 증가 추이 / 63
〈그림 Ⅱ-27〉 물적담보 보험금 지급 규모 추이 / 63
〈그림 Ⅱ-28〉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수입차 영향력 확대 / 64
〈그림 Ⅱ-29〉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 65
〈그림 Ⅱ-30〉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66
〈그림 Ⅱ-3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68
〈그림 Ⅱ-3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 68
〈그림 Ⅱ-3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명목경제성장률 전망 / 70
〈그림 Ⅱ-34〉 보험침투도 추이 및 전망 / 72
〈그림 Ⅲ-1〉 데이터 분석 경쟁력 발전단계 / 87

# Insurance Industry Outlook and Issues 2016

This report provides growth projections in 2016 for the insurance industry as well as the Korean economy.

In 2016, the Korean economy is expected to grow by 2.8%, increasing by 0.4%p over 2015, as exports and capital investment will be improved, while private consumption recovery trend will continue to be stagnant.

In 2016, consumer prices will rise by 1.3%, increasing by 0.5%p over 2015, with a slowdown in decline trend of international raw material prices. Interest rate of Korea treasury bonds (3-year) is expected to rise annual average 2.0% some time after a increase in the U.S.'s Treasury bond rate. In spite of a continuing current account surplus, the won/dollar exchange rate will record 1,180 won due to a rise in the U.S.'s Treasury bond rate and yuan depreciation.

In 2016, the global economy is expected to grow by 3.6%, increasing by 0.5%p over 2015, as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ill grow steadily. The global risk factors for the economy are persistence of low growth and the possibility of hard landing in China. Economic downside risk is expected to higher than upside risk.

In 2016, both life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 will increase over 2015, and premium income will grow to 7.8%, increasing by 0.7%p over 2015.

To be specific, the premium income of life insurance is expected to increase by 8.6% (without retirement pension 5.2%), which is 1.4%p higher than 2015, since the premium income of personal insurance increased thanks to a rise in the premium income of saving type insurance. Moreover, the premium income of life insurance will grow, if large companies are obligate to have retirement pension policy. The risk factors are a system for reduction in expected rate of interest, which was in effect in 2015, an increase in interest rate risk, a slump in financial markets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he financial crisis, and a passage of law for employment

retirement benefit security by mutual agreement between opposing parties.

For non-life insurance, the premium income will increase by 6.8% (without retirement pension 4.4%), which is 0.1%p lower than 2015, due to a low growth of long-term non-life insurance and automobile insurance, and a slowdown in individual annuity and general non-life insurance premiums.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insurance industry are: first, continuing low growth and expansion of the uncertainty in the financial markets; second, demographic and household structure changes, and the expansion of interest in the retirement income; third, expanded needs for the insurance industry' social role, financial integration and composite; fourth, financial reform and liability market price valuation system is scheduled to adopt and to cope with this, insurers should consider issues, such as i) developing management strategies in a low growth fixation and risk, ii) responding systematically to financial reform, iii) seeking strategy for small and medium-sized insurers, iv) reacting strategically to IFRS4 Phase Ⅱ, and v) dealing with financial integration and composite.

First of all, the report suggests that insurers should establish the business strategies accord with the new normal era to respond to low growth and low interest rates. After financial crisis, profitability has deteriorated and the growth has decreased. This is not a temporary phenomenon, rather it is caused by structural factors such as low growth and low interest adhesion, demographic changes, and financial regulations. Therefore, the insurers should enhance the corporate value by changing business objectives from short-term profit to long-term profit. Moreover, this report emphasizes that risk-weighted capital, product development, and asset management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enterprise risk management system.

Second, the main purpose of financial reform is to enforced the solvency, consumer protection, and market order; however, the regulations related to products and price are self-regulated. As the market competition will be regularized, the insurers

should highlight the unique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product development, asset management, and distribution channels. On the other hand, insurance industry confidence should be improved by make market order to be sound through strengthening agents responsibility.

Third, as low growth adhesion and financial reform will affect more to small and medium-sized insurers rather than large insurers, small and medium-sized insurers should differentiate competitiveness based on their own strength and should consider overcoming size inferiority through M&A.

Fourth, insurers should establish a concrete capital expansion plan, as capital is expected to be reduced according with the adoption of liability market price valuation system. The financial supervisory proposed to improve the regulations, which support insurers' IFRS Phase II adoption.

Fifth, convergence and conglomerate among financial companies, such as Internet Only Bank, financial integration and composite,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adoption, and insurance supermarket, have been accelerated; therefore, insurers should improve product competitiveness through capabilities of risk evaluation and should create new added value by utilizing fintech and big data.

# 요 약

## Ⅰ. 경제동향과 전망

### 1. 세계 경제

▒ IMF는 2015년 세계 경제가 선진국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성장세 둔화로 2014년보다 0.3%p 하락한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2015년 선진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014년 대비 0.2%p 상승한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중국,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로 2014년보다 0.6%p 하락한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IMF는 2016년 세계 경제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완만하게 회복되어 2015년보다 0.5%p 상승한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중국 경착륙 가능성 및 금융시장 불안,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 글로벌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16년 선진국의 경우 일본, 미국, 유로 등 주요국 경제 성장세 확대로 2015년보다 0.2%p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인도를 중심으로 2015년보다 0.5%p 상승한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IMF는 2015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2014년 3.5%에서 0.2%p 하락한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2016년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임박에 따른 신흥국 자금 흐름 변화, 신용 및 유동성 위험 등으로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임.

○ 2015년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 경제보다 상대적 호조세를 보이며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세계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었음.

○ 미국, 유로 지역, 일본의 국채 금리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도래로 선제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향후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국채 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전망임.

## 2. 국내 경제

▒ 2015년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2014년(3.3%) 증가율보다 0.9%p 하락한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소비자물가는 총수요 부진 지속 등으로 2014년보다 0.5%p 하락한 0.8% 오를 전망임.

▒ 2016년 국내 경제는 기저효과에 따른 수출 개선과 노후설비 교체 수요 등에 따른 설비투자의 완만한 회복으로 2015년 증가율보다 0.4%p 높은 2.8% 성장할 전망임.

○ 2016년 민간소비는 전세가 상승 및 월세 비중 증가, 노후대비 부담, 가계부채 누증 등 구조적 요인으로 1.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설비투자는 수출 증가세, 정부 및 대기업 주도의 투자활성화 정책, 노후설비 교체 수요 등에 힘입어 2015년에 비해 0.4%p 상승한 5.9% 증가할 전망임.

▒ 201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수입물가 하락세 진정 등으로 2015년 0.8% 대비 0.5%p 높은 1.3% 상승할 전망임.

▒ 2016년 고용상황의 경우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와 여성 · 노년 ·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 등으로 고용률은 2015년보다 0.2%p 상승한 60.4%를, 실업률은 0.2%p 하락한 3.7%를 나타낼 전망임.

▒ 2016년 경상수지는 12억 5,000만 달러 늘어난 859억 1,000만 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5.6% 증가한 6,076억 9,000만 달러, 수입의 경우 전년대비 6.3% 증가한 5,122억 8,000만 달러를 나타낼 전망임.

- 2016년 수출단가와 수입단가는 2014~2015년간 이어진 하락세에 대한 기저효과로 상승전환하고 이에 따라 수출입금액 역시 증가할 전망임.

○ 상품수지는 2015년 936억 6,000만 달러보다 17억 5,000만 달러 증가한 95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할 전망임.

○ 서비스수지 적자의 경우 해외여행 출국자 수 증가 등으로 2015년 90억 달러보다 5억 달러 확대될 전망임.

### 3. 국내금융시장

▒ 2015년 국고채(3년) 금리는 연간 1.8% 수준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아 장 · 단기 금리차가 확대됨.

▒ 2015년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시기 도래, 중국 경제 부진 및 위안화 평가 절하 등으로 원화가 약세를 지속하여 2015년 평균 1,14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국고채(3년) 금리는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차를 두고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015년보다 소폭 상승하여 연간 평균 2.0%를 기록할 전망임.

2015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위안화 평가 절하 등의 영향으로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것이며, 연간 평균 환율은 2015년보다 상승한 1,180원으로 전망함.

# Ⅱ. 국내보험시장

## 1. 생명보험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모두 성장하여 전체적으로는 7.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5.6% 증가할 것임.

○ 개인보험은 보장성보험의 지속적인 성장과 저축성보험의 성장세 회복의 영향으로 5.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단체보험은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에 따라 19.0%의 고성장이 예상됨.

2016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이 소폭 성장하고, 퇴직연금제도가 대기업 위주로 가입 의무화가 될 경우 단체보험도 성장하여 전체적으로는 2015년에 비해 1.4%p 상승한 8.6% 성장이 전망됨.

○ 개인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의 제한된 성장과 저축성보험의 성장세 회복으로 5.2% 성장이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가격인상과 종신보험 가입률 제고 여파로 수요가 둔화되고, 일부 대형보험회사들의 저축성보험 판매 강화로 성장이 축소되어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 가격인상, 상대적 고금리 유지 및 세제 혜택 등으로 생존보험 중심의 일반저축성 보험 수요 회복이 전망되나, 저금리 지속, 경제회복 지연, 가계소득 증가율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저축여력이 감소되면서 4.7%의 성장이 전망됨.

○ 단체보험의 경우 일반단체보험은 감소할 것이나 퇴직연금제의 단계적 전환, 300인 이상의 기업 정년제 실시 등으로 인한 퇴직연금 시장 확대가 예상되어 31.6%의 고성장이 전망됨.

## 2. 손해보험

▒ 2015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과 퇴직연금의 양호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6.9% 증가가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5.7% 증가가 예상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성장 여력 약화로 1.7% 감소가 예상되나,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26.2% 증가가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14년에 미반영된 자동차보험료 인상분 반영과 대물담보 가입금액 확대 추세로 7.1% 증가가 예상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보험 역성장과 다른 종목들의 실적 개선세도 크지 않아 2.7% 증가에 그칠 것임.

▒ 2016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 고성장으로 전년대비 6.8% 증가가 전망되나, 퇴직연금 이외 종목들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퇴직연금 실적을 제외할 경우 4.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장기상해 및 질병보험 증가세 둔화와 장기저축성보험 감소세로 2014년 증가율보다 0.3%p 낮은 5.4%가 전망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신규수요 확대 요인 부재로 0.2% 감소가 예상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추가납입에 대한 300만 원 세액공제, 확정급여형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 의무가입 추진 등으로 28.6%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상 효과 소멸과 온라인 판매채널 증가세 등으로 3.4% 성장하는 데 그칠 전망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보험 역성장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부진으로 2.8%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임.

# Ⅲ. 보험산업 경영과제

## 1. 저성장 고착화 대응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국내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는 일시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함.

○ 구조적인 요인들로 저성장 고착화, 고령화, 기술변화, 규제 등이 있음.

▒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비우호적인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영전략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생존전략과 성장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생존전략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만 하는 전략으로 IFRS 2단계 도입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본금을 확충해야 함.

○ 성장전략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전통사업(변액연금 및 자산관리 서비스) 및 해외진출을 강화해야 함.

▒ 전사적 리스크 관리하에서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2. 금융개혁 체계적 대응

### 가. 일반손해보험 요율산출 및 가격산출 능력 제고

▒ 우리나라 일반손해보험 시장은 경제 저성장으로 인해 시장규모 자체가 정체되어 있으며, 원수보험료도 8.1조 원으로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의 10.6%에 그침.

▒ 이러한 가운데 일반손해보험 협의요율 사용 비중이 매우 높아 요율산출 및 가격산출능력 향상이 저해되고 있음.

○ 특히 중·소형 보험회사는 스스로 위험을 평가할 능력이 부족하여 요율산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격산출 능력이 필요함.

▒ 요율산출 능력 및 가격산출 능력 향상을 위해 보험회사의 자립성, 자율성 및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 (자립성 강화)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필요시 재보험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자율성 강화) 자사경험율, 참조율, 판단요율, 그리고 협의요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함.

○ (내부통제역량 강화) 보험회사는 요율산출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요율을 산출하여야 함.

### 나. 시장질서 건전화, 보험이해력 증진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상대적인 소비자 신뢰도 수준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민원, 계약 유지율 등 소비자 신뢰 관련 주요 지표들이 타업권 또는 국제 비교 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임.

- 우리나라 민원 비중은 2015년 상반기 접수된 금융민원 3만 6,133건 가운데 보험이 63.4%(2만 2,892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보험산업 국제 신뢰도 조사 결과(Capgemini)에서도 우리나라의 보험소비자 경험신뢰지수(CEI, 30개국)는 2년 연속 29위를 기록함.

▒ 판매자 책임에 대한 규제 공백과 책임의식 부재로 인해 대형 판매채널이 고객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인센티브에 좌우되는 불건전한 영업관행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음.

▒ 판매자 책임 강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단기적으로 설명의무에 앞서 보편적인 상담의무(계약교섭 및 계약체결 전의 의무)를 부과하고 상담의무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을 판매자가 별도로 증명하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자와 판매자의 위임관계, 즉 대리법리에서 발생하는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직접적인 판매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보험의 역할과 위험관리 등을 홍보하는 일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올바른 보험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임.

## 3. 중·소형 보험회사의 성장전략 모색

▒ 중·소형 보험회사들이 대형 보험회사와의 경쟁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M&A를 통해 규모의 열세을 극복하는 것임.

○ 합병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경우 규모의 열세에 따라 나타나는 상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유리할 것임.

○ 경영권 문제가 합병의 장애요인이 될 경우 경영권을 분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임.

▒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대형 보험회사와 같은 유사한 사업모델로 경쟁하기보다는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하는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외부판매채널, 타보험회사, 타업권의 금융사 등 다양한 제휴 파트너를 대상으로 적절한 사업 모형을 강구할 경우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자본 제휴를 하거나 공동의 사업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4. IFRS 준비 강화

▒ IFRS 4 phase II 시행에 앞서 남은 기간 동안 부채시가평가에 적합하도록 시스템 및 인력을 확보하고, 손익관리, 보험영업,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등 업무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

▒ 부채시가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과 이를 지원할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한편, phase II로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장래이익은 보험부채에 포함되지만, 장래 결손은 즉시 자본을 차감하므로 그 자본을 지급여력평가에 활용할 경우 보험회사 지급여력이 지금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날 것임.

▒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보험회사가 연착륙하도록 하려면 제도 설계 단계부터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5. 금융 융·복합화 대응 및 핀테크, 빅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노력

### 가. 금융 융·복합화 대응

▒ 은행과 보험업의 융·복합화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업권 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며 특히 보험산업의 경쟁은 가속화될 것임.

○ 저금리로 예대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업 경쟁 심화는 은행의 보험 및 증권상품 판매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임.

○ 은행계 보험회사가 입점한 복합점포는 판매 상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은행계 보험회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경우 파급 효과는 클 것임.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가 도입될 경우 보험산업의 장기 저축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보험상품 판매 경쟁과 업권 간 복합 상품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상품개발과 마케팅 전략의 변화가 필요함.

▒ 금융의 융·복합화 추세에서 보험업권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업권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나. 핀테크 기술 활용

▒ 보험산업에서의 핀테크 도입은 상품개발 단계부터 보험금 지급단계까지 보험업 전반의 사업방식 변화를 촉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감독당국은 규제 개선을 통해 보험산업에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보험산업은 고객수요 창출, ICT 활용 및 정보보안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어야 함.

### 다. 내부 데이터의 전사적 통합 완료, 외부 데이터 활용 추진

▒ 기업의 데이터 분석 경쟁력 발전단계를 ① 데이터 통합 정도, ② 활용 데이터의 범위, ③ 데이터 분석조직 측면에서 도식화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요약 그림 1〉 데이터 분석 경쟁력 발전단계

자료: 김옥기(2014), 『데이터 과학: 어떻게 기업을 바꾸었나?』에서 인용, 내용 재구성.

▒ 국내 보험산업은 데이터 분석 경쟁력 발전단계에서 볼 때,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음.

○ 형식을 갖춘 BI 도구를 활용하여 사업부서별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대다수 보험사의 경우 전사적 데이터 통합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외부 데이터의 활용 또한 미흡한 상태임.

○ 국내 보험산업이 데이터 분석 측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내부 데이터의 전사적 통합을 완료하고, 더 나아가 외부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Ⅰ. 경제동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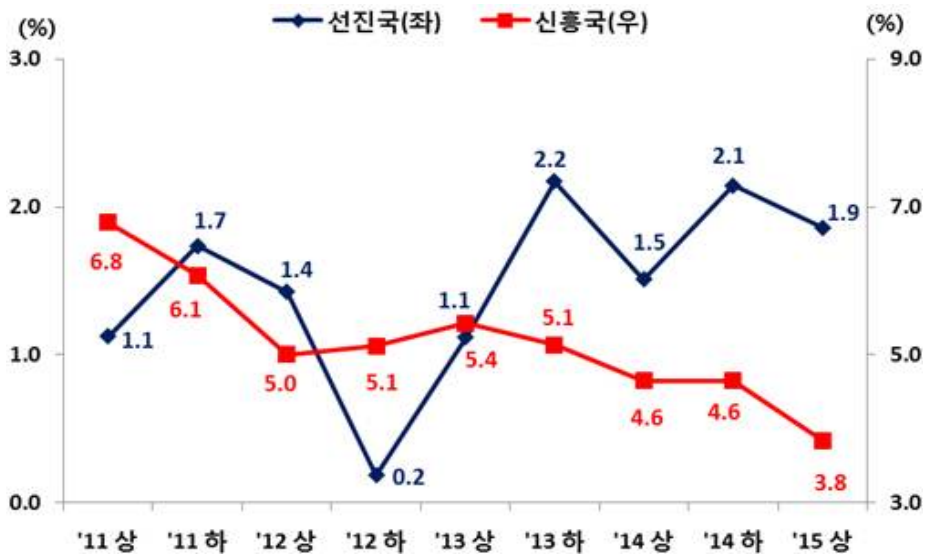
## 1. 세계 경제

### 가. 경제성장

▒ IMF는 2015년 세계 경제가 선진국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성장세 둔화로 2014년보다 0.3%p 하락한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1)]

○ 선진국은 2014년 하반기보다 2015년 상반기 성장률이 하락하였지만, 하반기에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Ⅰ-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IMF WEO(2015. 10).

1) IMF(2015. 10), World Economic Outlook.

▒ 2015년 선진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014년 대비 0.2%p 상승한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고용 및 소비 개선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됨.

○ 유로 지역은 양적완화 효과 및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 등으로 2014년보다 0.6%p 상승한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 효과 및 엔저에 따른 수출 증가, 투자 회복으로 인해 2014년보다 0.7%p 상승한 0.6% 성장이 예상됨.

〈표 Ⅰ-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E) | 2016(F) | | |
|---|---|---|---|---|---|---|---|
| |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 세계 경제 | 3.4 | 3.3 | 3.4 | 3.1 | 3.6 | - | - |
| 선진국 | 1.2 | 1.1 | 1.8 | 2.0 | 2.2 | 2.3 | 2.3 |
| 신흥국 | 5.2 | 5.0 | 4.6 | 4.0 | 4.5 | 4.4 | 5.1 |
| 미국 | 2.2 | 1.5 | 2.4 | 2.6 | 2.8 | | |
| 유로 | -0.8 | -0.3 | 0.9 | 1.5 | 1.6 | | |
| 일본 | 1.7 | 1.6 | -0.1 | 0.6 | 1.0 | | |
| 중국 | 7.7 | 7.7 | 7.3 | 6.8 | 6.3 | | |
| 인도 | 5.1 | 6.9 | 7.3 | 7.3 | 7.5 | | |
| 브라질 | 1.8 | 2.7 | 0.1 | -3.0 | -1.0 | | |
| 세계무역 | 2.9 | 3.3 | 3.3 | 3.2 | 4.1 | | |

자료: IMF(2015. 10), World Economic Outlook.

▒ 2015년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중국,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로 2014년보다 0.6%p 하락한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기준금리 인하[2] 및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투자 위축,

2)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 11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총 1%p 금리를 인하하였고, 2015년 3차례 지준율을 하향 조정함.

제조업 과잉생산 억제정책에 따른 설비투자 부진, 수출 감소로 2014년 대비 0.5%p 하락한 6.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의 철강, 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정책 시행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단기적인 기업 투자심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2015년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원자재 수요 부진, 경제개혁 지연 등으로 2014년보다 2.9%p 하락한 -3.0%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인도의 경우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모디노믹스의 가시적 성과에 따른 소비 등 내수 개선으로 2014년과 동일한 7%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IMF는 2016년 세계 경제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완만하게 회복되어 2015년보다 0.5%p 상승한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중국 경착륙 가능성 및 금융시장 불안,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 글로벌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16년 선진국의 경우 일본, 미국, 유로 등 주요국 경제 성장세 확대로 2015년보다 0.2%p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경우 고용 개선, 임금 상승 등의 효과로 2015년보다 0.2%p 상승한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유로 지역의 경우 저유가 효과는 약화되나, 양적완화 지속으로 민간부문 심리 개선 및 내수 회복, 유로화 약세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으로 2015년 대비 0.1%p 상승한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 해소로 2015년보다 0.4%p 높은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인도를 중심으로 2015년보다 0.5%p 상승한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부

패 정책으로 인한 소비 및 투자 부진 등으로 2015년보다 0.5%p 낮은 6.3% 성장이 예상됨.

- 반면, 인도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 구조개혁 및 개방정책 시행,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2015년보다 0.2%p 상승한 7.5% 성장할 전망임.
- 브라질 경제는 대외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정책적 개혁 부재 등으로 2015년 -1.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나. 소비자물가, 원유 및 원자재 가격

▒ IMF는 2015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2014년 3.5%에서 0.2%p 하락한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3)]

○ 2015년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OPEC 생산 증가, 이란 핵협상 타결 등 공급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요 요인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원유가격은 배럴당 평균 51.6달러[4)]가 될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 경기반등으로 2015년 대비 0.1%p 상승한 3.4%를 나타낼 전망임.[5)]

○ 선진국과 신흥국의 소비자물가는 각각 1.2%, 5.1% 상승할 전망임.

○ 2016년 국제유가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으로 2015년 대비 2.4% 하락한 배럴당 평균 50.4달러로 예상되며 2017년 이후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공급과잉 지속 등으로 약세 기조가 지속될 전망임.

---

3) IMF(2015. 10), WEO.

4) IMF(2015. 8), WEO, 두바이 · WTI · 브렌트 유가 평균 기준.

5) IMF(2015. 10), WEO.

## 다. 세계 금융시장

▒ 2015년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 경제보다 상대적 호조세를 보이며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세계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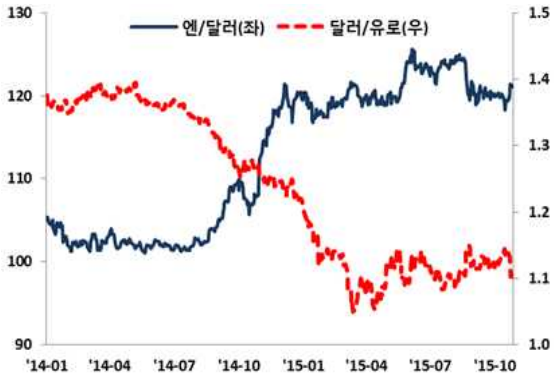
○ 유로화는 2015년 1월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결정 이후 미국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임.

○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지속 및 추가 완화 기대감, 일본 공적연금(GPIF)의 해외투자 확대[6]로 엔/달러 환율이 상승함.

▒ 미국, 유로 지역, 일본의 국채 금리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도래로 선제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향후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국채 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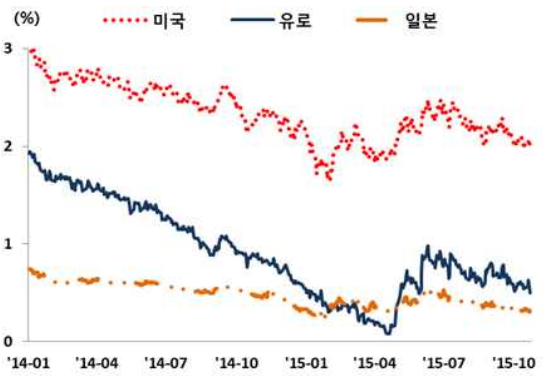
○ 2015년 주요국의 경우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시화시 장·단기 국채 금리는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전망임.

〈그림 Ⅰ-2〉 달러 대비 유로화와 엔화 추세




자료: Bloomberg.

〈그림 Ⅰ-3〉 미국, 유로, 일본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6) 2014년 10월 일본 공적연금은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4월부터 이를 시행하면서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6년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임박에 따른 신흥국 자금 흐름 변화, 신용 및 유동성 위험 등으로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임.

○ 달러화는 유로화, 엔화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 완화 지속과는 달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달러화 강세는 2016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나, 미국의 부담으로 제한적일 전망임.
-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이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달러화 대비 유로화와 일본 엔화의 완만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반면, 중국 위안화의 경우 자본수지 적자규모 확대, 5차례 금리 인하에 따른 대내외 금리 차이 축소, 위안화 절상 기대 소멸로 인한 핫머니 유출 지속 가능성 등으로 실질실효환율 기준 위안화 고평가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라. 경기하방 위험

▒ 중국의 주요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불안함에 따라 경제성장 둔화 우려도 위험요인으로 대두됨(〈Box 1〉 중국 경착륙 가능성 및 금융시장 불안).

○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30여 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15년 상반기 성장률이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7.0%에 그침.

- 2015년 하반기에도 내수와 수출 등 경기 관련 지표가 둔화되고 있어 2015년 경제성장률이 7.0%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세계 경제성장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지적됨(〈Box 2〉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

○ 2014년 10월 미국 양적완화가 종료된 이후,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 및 속도의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신흥국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됨.

-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그 속도 등 방향성이 명확해지면 금융시장 안정 회복이 예상됨.
- 다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디폴트 우려는 신흥국 전반으로 확대되지는 않으나, 그리스 사태 영향 및 자금이탈 우려로 남미, 동유럽 등 취약 신흥국 디폴트 우려는 존재함.

▒ 국제원자재 가격 약세, 인구 고령화로 인한 글로벌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 등으로 글로벌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도 위험요인으로 언급됨.

○ 국제원자재 가격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 및 투자 부진으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제기됨.

## Box 1 중국 경착륙 가능성 및 금융시장 불안

▒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 중 5% 이상,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연도 수는 각각 41개년과 34개년이고, 일본의 경우는 각각 28개년과 18개년임.

〈그림 Ⅰ-4〉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이(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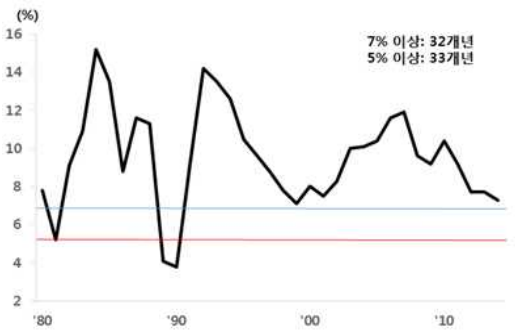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Ⅰ-5〉 일본 경제성장률 추이(1950~)

자료: 일본 내각부.

▒ 중국은 5% 이상,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연도 수는 각각 33개년과 32개년으로 그동안 고성장을 기록해왔으며, 다른 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함.

〈그림 Ⅰ-6〉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198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그림 Ⅰ-7〉 수출 증가율과 상하이 종합 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 Box 2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

▒ 미국 연준은 2015년 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열어 둔 가운데, 물가상승률 2% 목표치에 이르고 고용시장이 개선되어야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힘.

○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2015년과 2016년 각각 전년대비 0.9%p, 0.4%p 하락한 5.3%, 4.9%를 기록할 전망임.

〈표 Ⅰ-2〉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단위: %)

| 구 분 | 2013 | 2014 | 2015(E) | 2016(F) |
|---|---|---|---|---|
| 실업률 | 7.4 | 6.2 | 5.3 | 4.9 |

자료: IMF(2015. 10), World Economic Outlook.

▒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 및 속도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2000년대 들어 연준의 통화정책이 투명해지고 시장이 선제적으로 반응함에 따라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축소됨.

〈그림 Ⅰ-8〉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 미국 국채 수익률, 원/달러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 국내 경제

## 가.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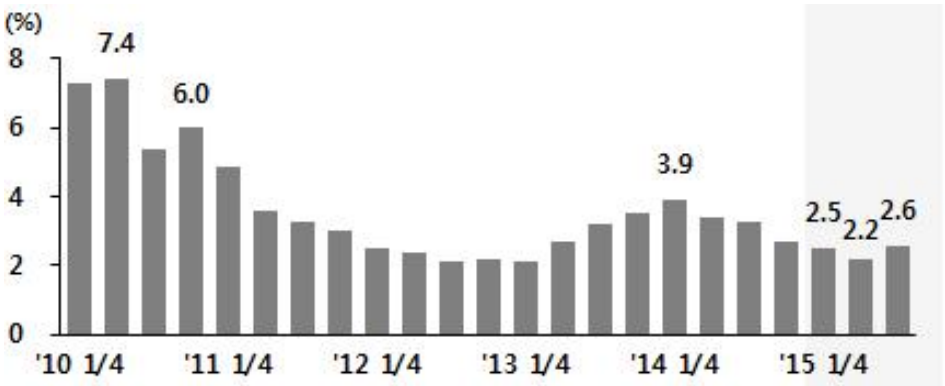
▒ 2015년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2014년(3.3%) 성장보다 0.9%p 하락한 2.4% 성장할 전망임.

○ 상반기 국내 경제는 메르스 확산 등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과 수출 감소로 2.3% 성장하는데 그침.

○ 그러나 3/4분기 국내 경제는 주택시장 회복세 지속, 정부의 소비활성화 조치 및 추경 집행 등에 따른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 등으로 2014년 1/4분기 이후 지속된 성장 둔화세에서 벗어났음.

○ 4/4분기에도 상반기 지연된 민간소비가 정부정책 효과로 소폭 확대되고 수출도 지난해 4/4분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임.

〈그림 Ⅰ-9〉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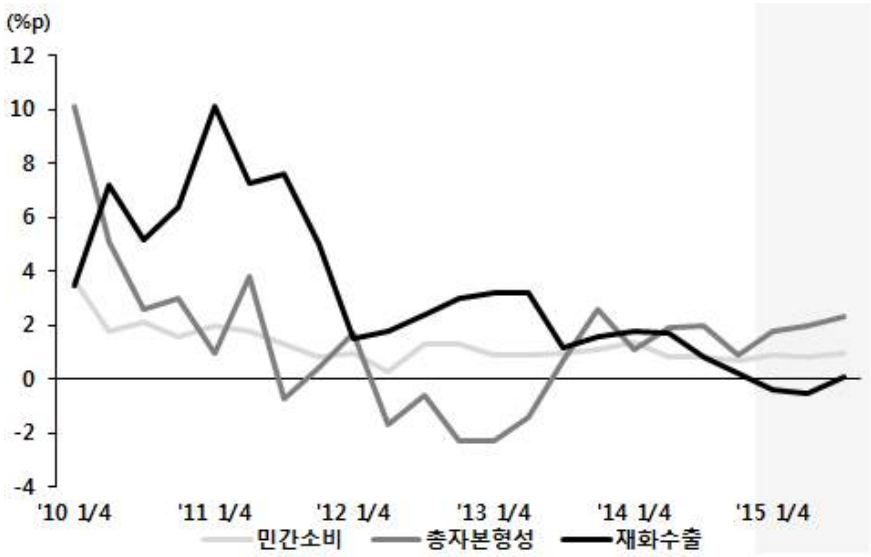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상반기 지출항목별 경제성장 기여도의 경우 주택경기 회복세와 노후설비 교체 수요 등에 따른 총자본형성 기여도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수출은 마이너스로 전환하였음.

– 하반기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민간소비 기여도가 소폭 상승하고 수출 기여도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임.

〈그림 Ⅰ-10〉 경제성장 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Ⅰ-3〉 국내 실물경제 동향 및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 2014 | | | | | 2015 | | | | 2016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2] | 연간(E) | 연간(F) |
| 실질 GDP[3] | 3.9 | 3.4 | 3.3 | 2.7 | 3.3 | 2.5 | 2.2 | 2.6 | 2.4 | 2.8 |
| 민간소비 | 2.6 | 1.7 | 1.5 | 1.4 | 1.8 | 1.5 | 1.7 | 2.0 | 1.7 | 1.9 |
| 설비투자 | 7.2 | 7.7 | 4.2 | 4.2 | 5.8 | 5.8 | 5.0 | 6.8 | 5.5 | 5.9 |
| 건설투자 | 4.1 | 0.2 | 2.3 | -1.4 | 1.0 | 0.6 | 1.6 | 5.2 | 2.5 | 2.2 |
| 지식생산물투자 | 7.2 | 5.7 | 4.9 | 1.1 | 4.6 | 1.7 | 0.8 | 1.3 | 2.5 | 4.5 |
| 재화수출[4] | 3.8 | 3.6 | 1.6 | 0.5 | 2.3 | -0.9 | -0.9 | 0.1 | 0.7 | 2.5 |
| 재화수입[4] | 3.1 | 1.3 | 1.4 | -0.7 | 1.2 | 0.1 | 0.7 | 1.6 | 1.3 | 2.9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2015(E)) 및 전망치(2016(F))임.
2) 속보치.
3)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4) F.O.B(본선인도가격)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2016년 국내 경제는 기저효과에 따른 수출 개선과 대기업 및 정부 주도의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2015년보다 0.4%p 높은 2.8% 성장할 전망임.

○ 2015년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재화수출은 2.5% 증가할 것으로 보며 설비투자 증가로 재화수입도 자본재를 중심으로 2.9% 늘어날 전망임.

○ 설비투자도 수출 증가세, 정부 및 대기업 주도의 투자활성화 정책, 노후설비 교체 수요 등에 힘입어 2015년에 비해 0.4%p 상승한 5.9% 증가할 전망임.

○ 그러나 전세가 상승 및 월세 비중 증가, 노후 대비 부담, 가계부채 누증 등 구조적 요인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1.9% 증가에 그칠 전망임.

## 나. 내수

### 1)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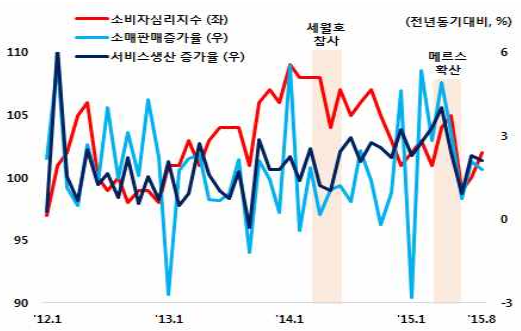
▒ 2015년 민간소비는 메르스 확산 등 일시적인 요인과 주거비용 상승, 원리금상환비율 증가, 고령층 소비성향 하락 등 구조적 요인으로 2014년 대비 0.1%p 하락한 1.7% 증가할 전망임.

○ 상반기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누증, 노후대비 부담 증가, 주거비용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2/4분기 중 메르스로 인한 불안심리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1.6% 증가하는데 그침.

〈그림 Ⅰ-11〉 전세가격 상승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월세비중

주: 분기월세비중은 해당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 비중의 단순평균임.
자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그림 Ⅰ-12〉 소비자심리지수 및 가계대출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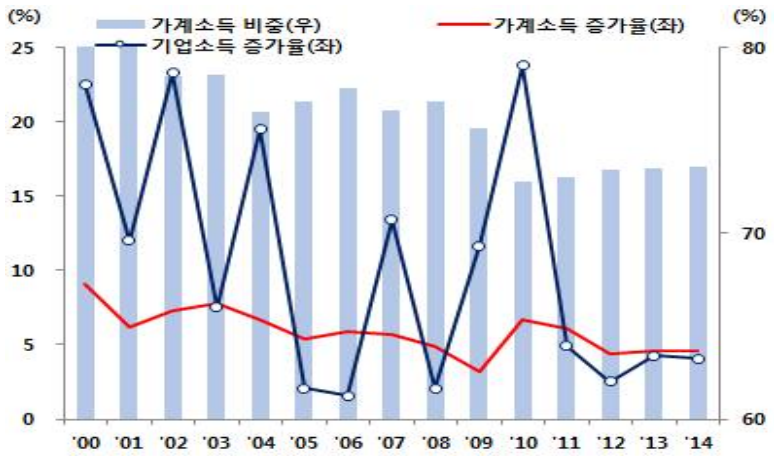
○ 하반기 정부의 민간소비 활성화 대책 시행 및 추경 집행 등으로 소폭 회복할 전망임.

▒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환경에 따른 경제 전반의 구조적 요인으로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될 전망임.

○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 주거비용 상승, 고용증가세 둔화 등이 이어지고 있음.

- 또한 대외 불안요인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여 가계소득 증가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그림 Ⅰ-13〉 가계소득 비중 및 가계소득, 기업소득 증가율




주: 1) 가계소득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총본원소득.
2) 가계소득 비중=가계소득/(가계소득+기업소득)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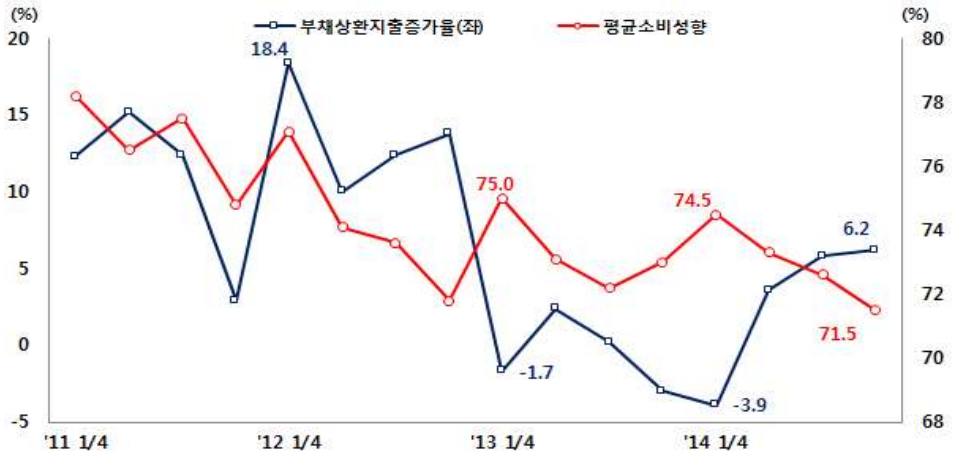
○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대비부담이 늘어나면서 평균소비성향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77.9%에서 2015년 2/4분기 71.6%로 하락함.
- 특히 60세 이상 고령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81.1%에서 2015년 2/4분기 67.5%까지 하락하였음.

○ 2014년 8월 주택 대출 규제 완화[7]와 기준금리 인하[8]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 증가폭이 확대되어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1/4분기 -3.9%를 기록했던 가계 부채상환지출 증가율은 2014년 4/4분기 6.2%까지 상승함.

〈그림 Ⅰ-14〉 부채상환지출 증가율과 평균소비성향




주: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소득-비소비지출)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016년 민간소비는 실질국내총소득이 증가하고 고용이 소폭 개선될 것이나 노후대비 부담이 지속,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 원리금상환부담 가중, 낮은 명목임금 증가율 등으로 1.9%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임.

○ 정부 정책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세 지속,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및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상승, 정년연장법안 시행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임.

○ 그러나 가계부채 누증, 노후대비 부담 증가, 주거비용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은 민간소비 증가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

– 중·장년층 및 여성, 청년 중심의 취업자 증가에 따른 제한적인 가계소득 증가세 또한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임.

---

7) 2014년 7월 정부는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LTV 및 DTI 규제 비율을 일괄적으로 70% 및 60%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2014년 8월부터 시행하였음. 이번 LTV·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주된 목적이 있음.

8) 한국은행은 2014년 8월과 10월, 각각 25bp씩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며 2015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bp씩 인하하여 현재 기준금리는 1.5%임.

### 2) 설비투자

▒ 2015년 설비투자는 높은 수준의 재고율, 낮은 설비투자 조정압력에도 2012~2013년의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노후설비 교체,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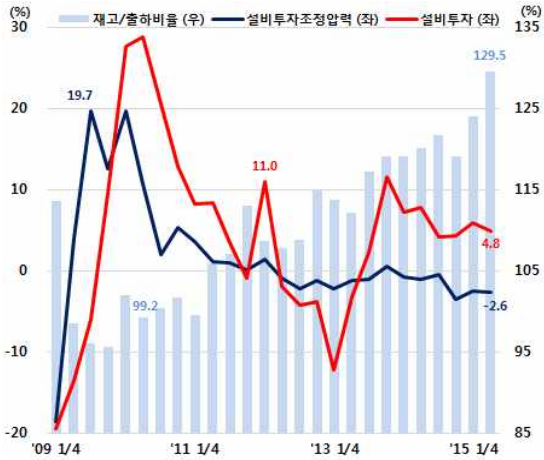
○ 상반기 설비투자의 경우 2012년 이후 이어진 기존 설비 유지 차원의 투자에서 노후 설비 교체 투자로 전환되면서 5.3% 증가하였음.

- 또한 미 연준의 2015년 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향후 투자비용 상승을 전망한 기업들의 선제 투자 수요도 설비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침.

○ 하반기 설비투자는 수출과 민간소비가 상반기에 비해 소폭 개선되더라도 높은 재고율, 기업의 수익성 하락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축소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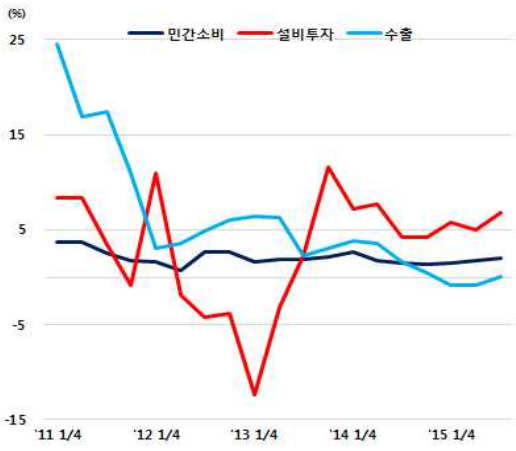
-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2013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4.3%로 하락하는 등 투자유인이 부재한 상황임.
- 또한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안요인 확대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음.

〈그림 Ⅰ-15〉 기업재고율, 평균가동률, 설비투자 조정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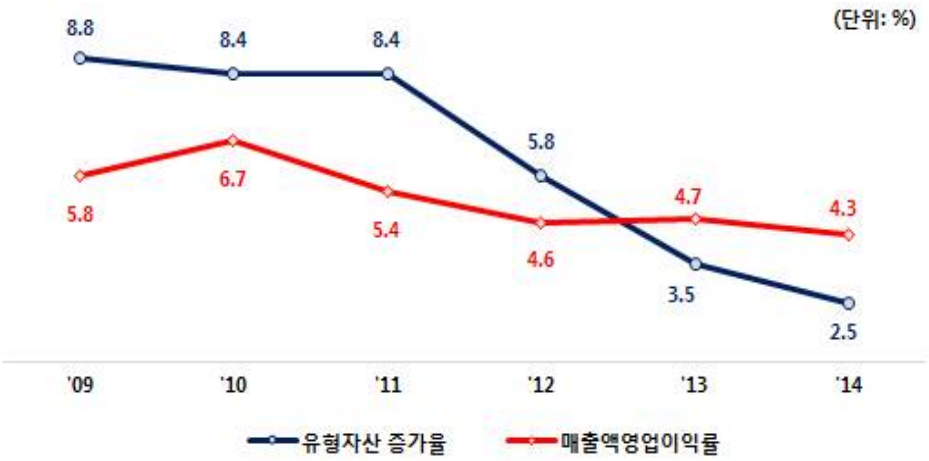

주: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제조업생산증가율과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의 차이로 설비투자 수요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Ⅰ-16〉 민간소비, 수출,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Ⅰ-17〉 기업 유형자산 증가율과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2015. 6).

▒ 2016년 설비투자는 2015년에 이어 노후설비 교체수요와 정부 및 대기업 주도의 설비투자 및 노후설비 교체 수요로 2015년보다 0.4%p 높은 5.9% 증가할 전망임.

○ 그러나 민간소비 및 수출 부진과 이에 따른 제조업 전반의 유휴설비 및 재고 증가,[9] 기업 전반의 수익성 하락세, 기업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증가폭은 제한될 전망임.

9) 제조업평균가동률(%): 2012년 78.5 → 2013년 76.2 → 2014년 1/4분기 77.2 → 2/4분기 76.3 → 3/4분기 75.8

## Box 3 가계, 기업, 정부 부채[1)]

▒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채 조정이 시작되면 경제성장률이 더욱 하락하고 이는 추가적인 부채 조정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초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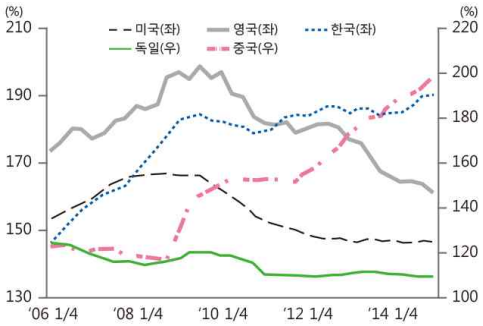
▒ 급속한 부채 조정 방지를 위한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임.

○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채 조정이 시작되지 않았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민간부채가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음.

○ 일반정부 부채도 2014년 하반기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민간부문 부채의 빠른 증가세는 민간소비 부진 및 설비투자 회복 지연으로 이어지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도 축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림 Ⅰ-18〉 주요 선진국, 중국, 우리나라의 GDP대비 민간부채 추이




〈그림 Ⅰ-19〉 GDP대비 가계, 기업, 정부부채 추이

자료: BIS.

1) 윤성훈(2014. 10), "3/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소고"의 내용을 발췌·요약함.

### 3) 건설투자

▒ 2015년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민간주택 건설 호조로 2014년보다 1.5%p 상승한 2.5% 증가할 전망임.

○ 상반기 건설투자의 경우 경제성장률 둔화, 민간소비 부진, 높은 공실률, 연초 세수 부진에 따른 정부의 SOC 예산집행 지연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하는데 그침.

- 주거용건물투자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 시장금리 하락,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시장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공급이 증가하면서 호조세를 보임.

○ 하반기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회복세, 추경 편성에 따른 SOC 예산 확충[10] 등으로 주거용 건물 투자와 토목건설이 증가할 전망임.

- 2016년 시행될 가계부채관리방안[11]의 영향으로 제도시행 전 주택매매와 주택 분양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비주거용건물 투자의 경우 시장금리 하락에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임.

▒ 2016년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투자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0.3%p 하락한 2.2%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임.

○ 2016년 정부 SOC 예산이 2015년보다 6% 축소되어 토목 부문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주거용건물투자 또한 본격적인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임.

○ 주거용 건물 투자의 경우 정부의 가계부채관리방안 발표 및 금리 상승 등으로 2015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임.

- 미국 금리 상승 및 국내외 금융 불안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도 건설투자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10) 2014년 본 예산에서 24.8조 원이었던 SOC 예산이 추경 편성에 따라 26.3조 원으로 확대되면서 2014년 SOC 예산 23.7조 원에 비해 11.0% 증액되었음.

11) 정책당국은 2016년부터 가계대출에 대해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할 방침임.

## 다. 고용

▒ 2015년 들어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은 2014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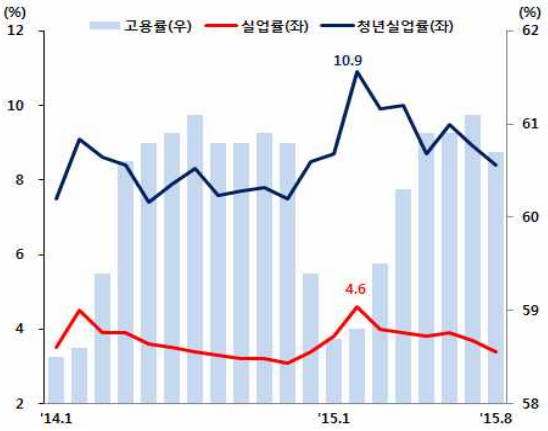
○ 상반기 중 취업자 수는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반면 50대 이상과 20대의 취업자 증가율은 상승하고 있음.
- 실업률은 청년층과 60세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상승하여 3.7%를 나타냈으며 고용률은 2014년 하반기보다 0.1%p 하락한 60.2%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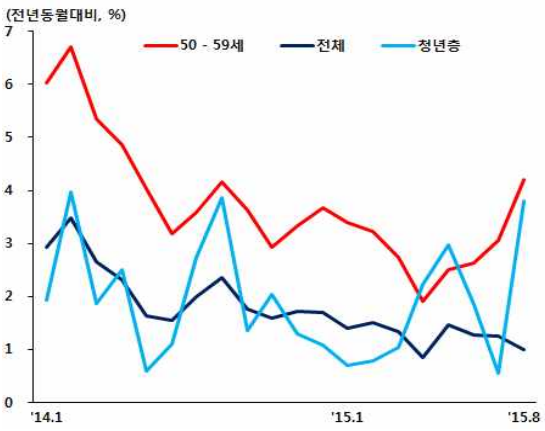
○ 하반기 중 취업자 수는 상반기에 비해 경기가 완만히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임.

- 또한 하반기 정부의 청년고용대책(6.25), 추경 편성(7.3) 등으로 청년층과 저소득층, 노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Ⅰ-20〉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




〈그림 Ⅰ-21〉 취업자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6년 고용여건은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 및 청년,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으로 고용률이 소폭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할 전망임.

○ 수출 증가세는 유지될 것이나,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조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못할 전망임.

○ 서비스업 취업자의 경우 인구 고령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임.

– 그러나 전통서비스 및 농림어업 종사자가 대부분인 자영업의 경우 내수 부진과 경쟁심화에 따른 업황 부진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Ⅰ-4〉 고용시장 동향 및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 2014 | | | | | 2015 | | | | 2016 (F)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연간(E) | |
| 총취업자 | 3.0 | 1.8 | 2.0 | 1.7 | 2.1 | 1.4 | 1.2 | 1.2 | 1.3 | 1.3 |
| 고용률[2] | 58.8 | 60.8 | 60.9 | 60.4 | 60.2 | 59.0 | 60.7 | 60.9 | 60.2 | 60.4 |
| 실업률[3] | 4.0 | 3.7 | 3.3 | 3.2 | 3.5 | 4.1 | 3.8 | 3.4 | 3.9 | 3.7 |
| 청년[4]실업률 | 9.8 | 9.4 | 8.6 | 8.3 | 9.0 | 10.3 | 9.9 | 8.4 | 9.5 | 9.0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2015(E)) 및 전망치(2016(F))임.
2)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로 정의됨.
3)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라. 물가

▒ 2015년 소비자물가는 원화 강세와 저유가 등으로 2014년보다 0.5%p 하락한 0.8% 상승하는데 그칠 전망임.

○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하락, 국제유가 급락과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 요금 안정세, 전기 · 수도 · 가스요금 하락[12] 등으로 0.5%에 그쳤음.

○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 가뭄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교통요금 인상 등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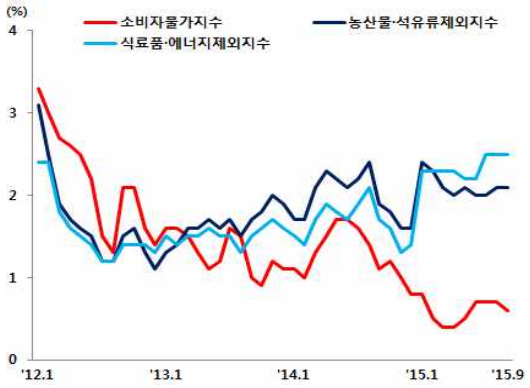
12) 2015년 상반기 중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도시가스요금이 세 차례 인하되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원료비가 기존에 적용되던 원료비보다 ±3%를 초과하여 변동된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할 수 있음.

○ 그러나 농산물·식품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담뱃값 인상 등으로 2%를 상회하고 있음.

-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는 수요 측면보다는 원자재 가격 및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등 공급 측면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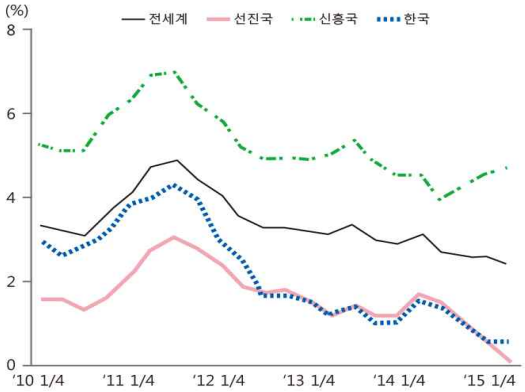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총수요 부진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년간 하락폭은 선진국과 유사함.

〈그림 Ⅰ-22〉 근원인플레이션율




주: 인플레이션율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Ⅰ-23〉 글로벌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IMF.

▒ 2016년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수입 물가 하락세가 진정됨에 따라 2015년 0.8% 대비 0.5%p 높은 1.3% 오를 전망임.

○ 경기가 소폭 개선되더라도 민간 소비 부진이 지속되어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은 높지 않을 전망임.

○ 원자재 가격 하락세, 2015년 중 농산물 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폭 축소 가능성 등으로 공급 측면의 상승 압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Ⅰ-5〉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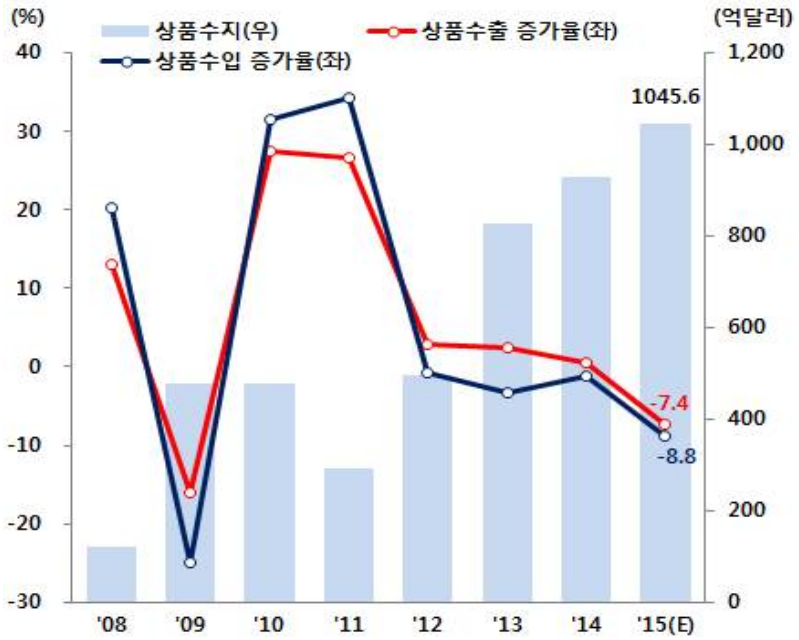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E)[1] | 2016(F)[1] |
|---|---|---|---|---|---|---|
| 소비자물가상승률 | 4.0 | 2.2 | 1.3 | 1.3 | 0.8 | 1.3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2015(E)) 및 전망치(2016(F))임.
자료: 통계청, 「물가동향」.

## 마. 대외거래

▒ 2015년 경상수지 흑자는 민간소비 부진 지속과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었으나 해외여행객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더 크게 확대되어 45억 6,000만 달러 감소한 846억 6,000만 달러를 나타낼 전망임.

〈그림 Ⅰ-24〉 수출입 증가율과 상품수지 추이




주: F.O.B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 상반기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523억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 2015년 상반기 수출은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감소한 2,789억 2,000만 달러를 나타냄.
- 수입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18.3% 감소한 2,188억 달러를 나타냄.
- 이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는 2014년 상반기대비 159억 4,300만 달러 증가한 60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서비스수지 적자의 경우 40억 9,000만 달러 확대된 94억 3,000만 달러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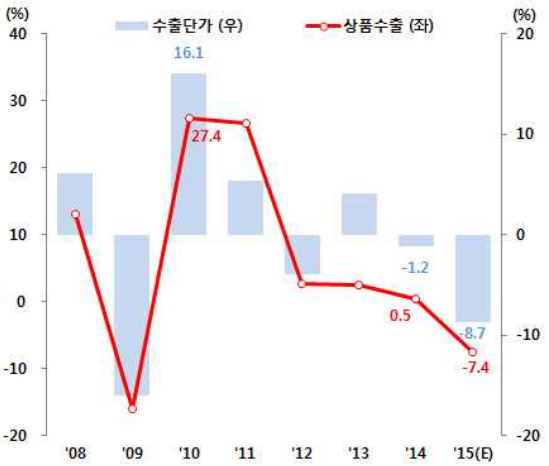
○ 하반기 경상수지는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상반기에 비해 축소될 전망임.

- 수출의 경우 중국 경제성장 둔화, 수출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의 경우 민간소비가 상반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임.
- 이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는 상반기에 비해 축소될 전망이며 상반기 메르스 확산에 따른 여행객 수요가 하반기에 몰리면서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줄어들 전망임.

▒ 2015년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수출입단가 급락임.

○ 세계교역량 둔화, 중국의 경제 부진 및 산업 연계구조 약화 등으로 수출입 물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입 단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수출입금액도 감소하였음.

〈그림 Ⅰ-25〉 수출 증가율과 수출단가 증가율




〈그림 Ⅰ-26〉 수입 증가율과 수입단가 증가율

주: 2015년 수출입평균단가는 2015년 1~8월 관세청 확정치를 사용함.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 2016년 경상수지는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12억 5,000만 달러 늘어난 859억 1,000만 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5.6% 증가한 6,076억 9,000만 달러, 수입의 경우 전년대비 6.3% 증가한 5,122억 8,000만 달러를 나타낼 전망임.

- 2016년 수출단가와 수입단가는 2014~2015년간 이어진 하락세에 대한 기저효과로 상승전환하고 이에 따라 수출입금액 역시 증가할 전망임.

○ 상품수지는 2015년 936억 6,000만 달러보다 17억 5,000만 달러 증가한 95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할 전망임.

○ 서비스수지 적자의 경우 해외여행 출국자 수 증가 등으로 2015년 90억 달러보다 5억 달러 확대될 전망임.

〈표 Ⅰ-6〉 대외거래 전망

(단위: 억 달러, %)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E)[1] | 2016(F)[1] |
|---|---|---|---|---|---|---|
| 경상수지 | 186.6 | 508.4 | 811.5 | 892.2 | 846.6 | 859.1 |
| 상품수지 | 290.9 | 494.1 | 827.8 | 926.9 | 936.6 | 954.1 |
| 수 출[2] | 5,871.0 | 6,035.1 | 6,181.6 | 6,213.0 | 5,756.0 | 6,076.9 |
| (증가율) | (26.6) | (2.8) | (2.4) | (0.5) | (-7.4) | (5.6) |
| 수 입[2] | 5,580.1 | 5,541.0 | 5,353.8 | 5,286.1 | 4,819.3 | 5,122.8 |
| (증가율) | (34.2) | (-0.7) | (-3.4) | (-1.3) | (-8.8) | (6.3) |
| 서비스수지 | -122.8 | -52.1 | -65.0 | -81.6 | -90.0 | -95.0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2015(E)) 및 전망치(2016(F))임.
2) F.O.B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 3. 국내금융시장

▒ 한국은행이 2015년 3월과 6월 총 두 차례 기준금리를 하향조정한 결과 2015년 11월 현재 기준금리는 1.50%임.

○ 한국은행은 2015년 3월 12일 2014년 4/4분기 2.00%로 하향조정했던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하였고, 2015년 6월 11일 국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1.50%로 추가 인하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회복, 국내 경제 회복세를 예상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국 성장세 약화, 국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증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1.50%로 하향 조정함.

○ 실질기준금리는 2014년 평균 1.04%, 2015년 1/4~3/4분기 평균 0.99%를 기록함.

〈표 Ⅰ-7〉 기준금리

(단위: %)

| 구 분 | 2014 | | | | 2015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기준금리 | 2.50 | 2.50 | 2.25 | 2.00 | 1.75 | 1.50 | 1.50 |
| 실질기준금리 | 1.37 | 0.90 | 0.87 | 1.02 | 1.19 | 0.97 | 0.82 |

주: 실질기준금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제한 값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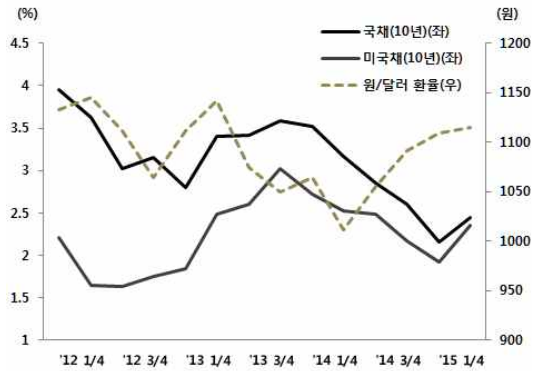
▒ 2015년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기준금리 하락 등의 요인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는 확대됨.

○ 2015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임.

-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은 미국 국채 수익률과 동조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나 그 금리 차이가 축소되고 있는 모습임.
- 미국 국채 수익률과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의 금리 차이가 축소되는 시기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 2015년 주요 신흥국 장기금리(국채 10년물 기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크게 변동하였으나 국내 장기시장금리는 낮은 수준의 변동성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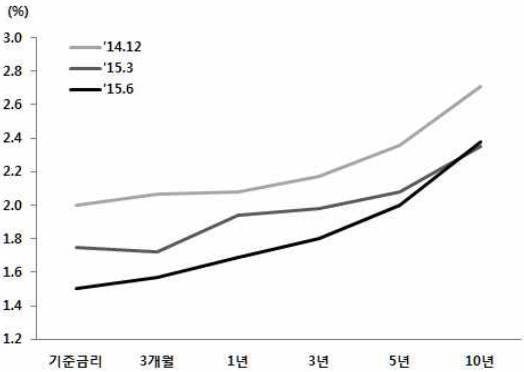
○ 전반적인 시장금리는 국내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장기시장금리의 경우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하여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가 확대되었음.

〈그림 Ⅰ-27〉 한국 · 미국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Ⅰ-28〉 국고채 수익률 곡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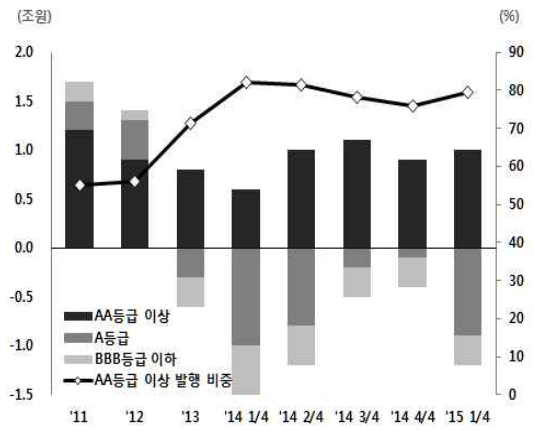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2015년 위험프리미엄은 2014년에 비하여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며 감소하였으나 등급 간 스프레드는 확대되고 있음.

○ 회사채시장에서는 우량물(AA등급 이상)과 비우량물(A등급 이하)간 신용차별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등급 간 스프레드도 확대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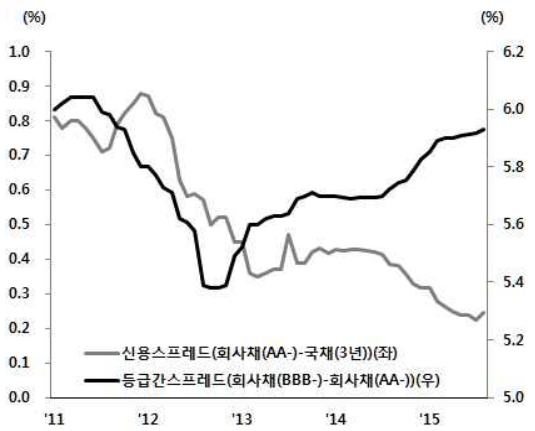
○ 회사채와 국채 간 신용스프레드는 우량 회사채 공급 부족으로 축소되고 있음.

〈그림 Ⅰ-29〉 회사채 순발행 현황 및 우량물 발행비중




자료: Bloomberg.

〈그림 Ⅰ-30〉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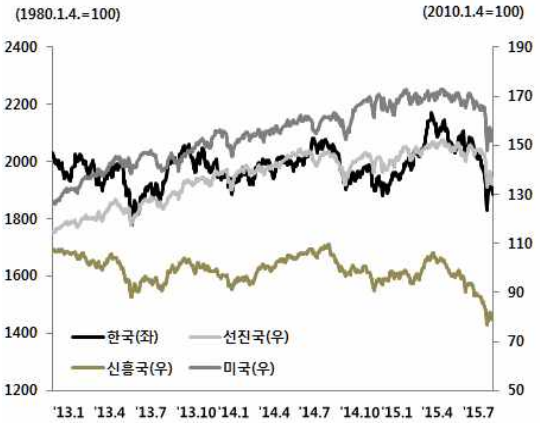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하반기에는 국고채 금리 하향추세가 지속되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간 1.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국고채 금리는 국내 기준금리 하락, 미국 금리 인상 지연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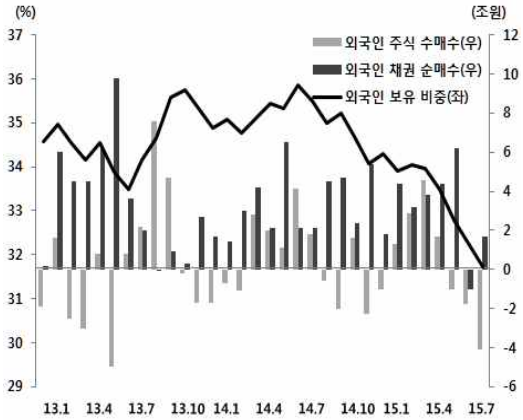
○ 2015년 하반기 국고채 금리는 미국 금리 인상, 달러화 강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신흥국 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임.

〈그림 Ⅰ-31〉 코스피 및 글로벌 주가




자료: Bloomberg.

〈그림 Ⅰ-32〉 외국인 주식순매매 및 보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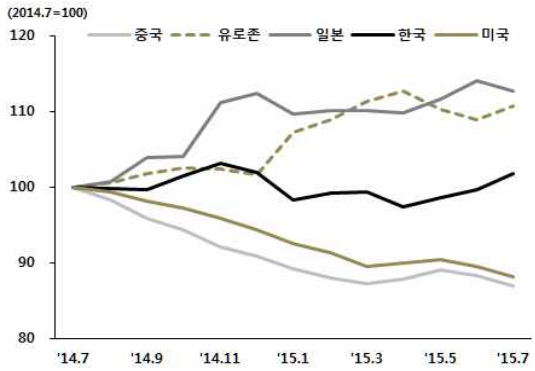

자료: krx; 한국은행.

■ 2015년 국내 주식시장은 세계 주식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2015년 세계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및 중국 경제 부진 우려가 겹치면서 하반기 들어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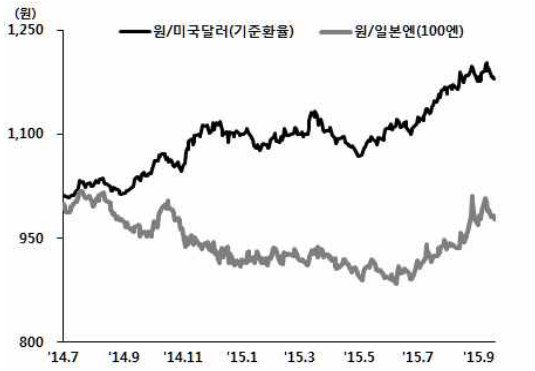
○ 2016년에는 국내 및 세계 경제 회복, 미국 금리 상승 등의 영향과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감소 등의 영향으로 자산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그림 Ⅰ-33〉 주요국 실질실표환율




자료: BIS.

〈그림 Ⅰ-34〉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1~8월 원/달러 환율은 2014년 평균 환율 1,053.2원에 비해 69.7원 절하된 평균 1,122.9[13]원을 기록하였음.

○ 2015년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신흥국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 유럽 경제 회복 속도 둔화 등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보임.

○ 2015년 하반기에는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시기 도래, 중국 경제부진 및 위안화 평가 절하 등으로 원화 약세가 지속되어 2015년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40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국고채 금리는 미국 경기 회복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위안화 평가 저하 등의 영향으로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것이며, 연간 평균 환율은 2015년보다 40원 상승한 1,180원으로 전망함.

○ 2016년 국고채(3년) 금리는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차를 두고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015년보다 소폭 상승한 연간 평균 2.0%를 기록할 전망임.

13) 기준 환율.

〈표 Ⅰ-8〉 금리 및 환율 전망

(단위: %, 원)

| 구 분 | 2015 | | | 2016 | |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 우량회사채 3년 수익률 | 2.2 | 2.2 | 2.2 | 2.4 | 2.3 | 2.5 |
| 국고채 3년 수익률 | 1.8 | 1.9 | 1.7 | 2.0 | 1.9 | 2.1 |
| 원/달러(평균) | 1,140 | 1,099 | 1,181 | 1,180 | 1,190 | 1,170 |

〈표 Ⅰ-9〉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종합

(단위: 억 달러, %)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E)[1] | 2016(F)[1] |
|---|---|---|---|---|---|---|
| 실질GDP | 3.7 | 2.3 | 2.9 | 3.3 | 2.4 | 2.8 |
| 민간소비 | 2.9 | 1.9 | 1.9 | 1.8 | 1.7 | 1.9 |
| 설비투자 | 4.7 | 0.1 | -0.8 | 5.8 | 5.5 | 5.9 |
| 건설투자 | -3.4 | -3.9 | 5.5 | 1.0 | 2.5 | 2.2 |
| 지식생산물투자 | 6.9 | 8.6 | 4.4 | 4.6 | 2.5 | 4.5 |
| 재화수출 | 17.1 | 4.4 | 4.5 | 2.3 | 0.7 | 2.5 |
| 재화수입 | 17.6 | 1.9 | 1.3 | 1.2 | 1.3 | 2.9 |
| 고용률 | 59.1 | 59.4 | 59.5 | 60.2 | 60.2 | 60.4 |
| 실업률 | 3.4 | 3.2 | 3.1 | 3.5 | 3.9 | 3.7 |
| 경상수지 | 186.6 | 508.4 | 811.5 | 892.2 | 846.6 | 859.1 |
| 상품수지 | 290.9 | 494.1 | 827.8 | 926.9 | 936.6 | 954.1 |
| 수출[2] | 5,871.0 | 6,035.1 | 6,181.6 | 6,213.0 | 5,756.0 | 6,076.9 |
| (증가율) | (26.6) | (2.8) | (2.4) | (0.5) | (-7.4) | (5.6) |
| 수입[2] | 5,580.1 | 5,541.0 | 5,353.8 | 5,286.1 | 4,819.3 | 5,122.8 |
| (증가율) | (34.2) | (-0.7) | (-3.4) | (-1.3) | (-8.8) | (6.3) |
| 서비스수지 | -122.8 | -122.8 | -122.8 | -122.8 | -90.0 | -95.0 |
| 소비자물가 | 4.0 | 2.2 | 1.3 | 1.3 | 0.8 | 1.3 |
| 국채(3년) 수익률 | 3.6 | 3.1 | 2.8 | 2.6 | 1.8 | 2.0 |
| 우량회사채(3년) 수익률 | 4.4 | 3.8 | 3.2 | 3.0 | 2.2 | 2.4 |
| 원/달러 환율 | 1,108 | 1,127 | 1,095 | 1,053 | 1,140 | 1,180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2014(E)) 및 전망치(2015(F))임.
2) F.O.B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Ⅱ. 국내보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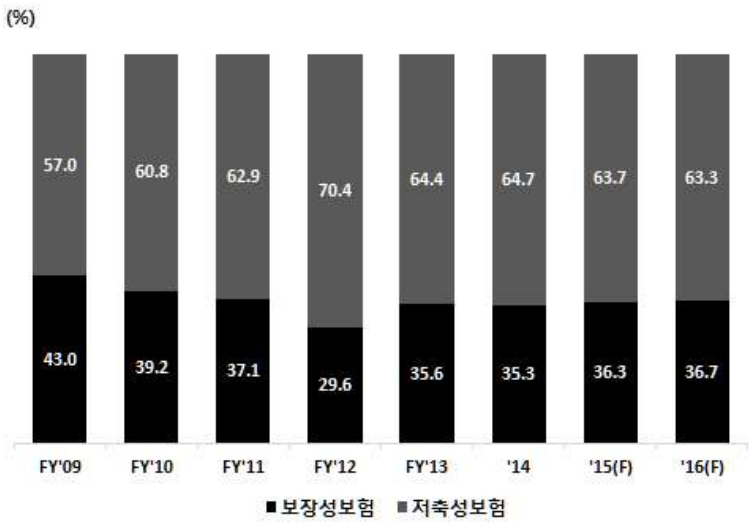
## 1. 생명보험

### 가. 개인보험

▒ 2015년[14]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회복이 부진한 반면 종신보험 위주의 보장성보험이 양호한 성장을 하면서 5.7%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보장성보험은 가격인상 전 선수요와 저축성보험 수요가 연금 선지급형 신종신보험으로 몰리면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저축성보험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개인보험 수입보험료가 역성장에서 벗어날 것임.

〈그림 Ⅱ-1〉 개인보험 보장성 및 저축성보험 비중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4) 2015(E)는 2015년 1~12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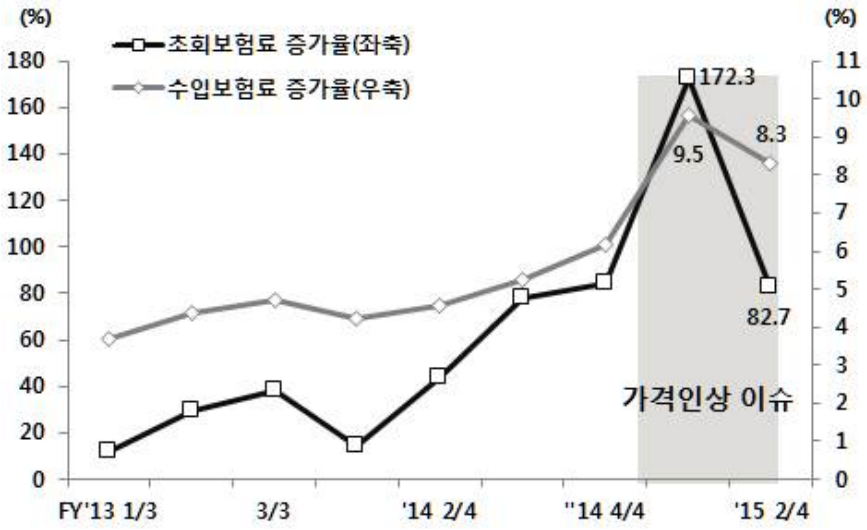
2016년[15]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부 보험회사들의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 여파로 인한 보장성보험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2015년에 비해 0.5%p 하락한 5.2% 증가가 전망됨.

개인보험 중 보장성보험 비중은 저축성보험의 상대적인 고성장이 최근까지 이어져 2014년에는 35.3%로 전년대비 0.3%p 하락하였으나 2015년은 36.3%로 1.0%p 상승, 2016년에는 36.7%로 0.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1) 보장성보험(종신 · CI · 건강 · 변액종신 등) 현황과 전망

2015년 상반기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연금 선지급형 신종신보험을 중심으로 신계약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2015년 전체로는 8.7%의 성장률이 예상됨.

〈그림 Ⅱ-2〉 보장성보험 보험료 성장률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들어 표준이율 하락에 따른 가격인상 우려로 종신보험에 대한 선수요가 일어났고 노후 소득 마련을 위한 연금 선지급 신종신보험의 인기가 겹치면

15) 2016년(F)은 2016년 1~12월까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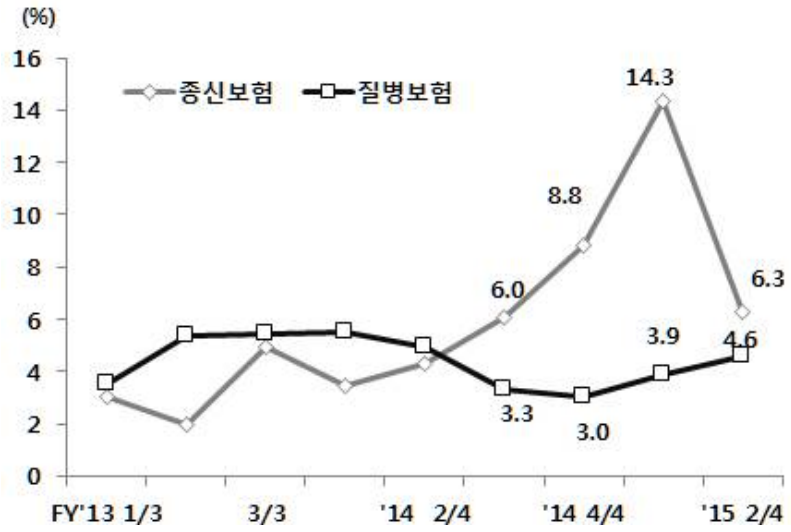
서 종신보험의 성장세가 높았음.

-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2014년 1/4분기 3.5%였던 성장률이 4/4분기 8.8%까지 성장했으며, 2015년 들어 가격인상이 이슈화되면서 1/4분기 14.3%, 2/4분기 6.3% 성장함.

○ 보장성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는 2014년 1/4분기 4.2%였던 성장률이 4/4분기까지 6.2%로 성장하였으며, 2015년 들어 1/4분기 9.5%, 2/4분기 8.3% 성장함.

- 질병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2012년 1/4분기 5.5%까지 성장률이 높아졌으나 이후 하락하여 4/4분기 3.0%까지 낮아진 후 2015년 들어 1/4분기 3.9%, 2/4분기 4.6%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변액종신보험의 경우도 주식시장의 부진에도 불구 전통적 종신보험과 함께 성장세가 확대되어 2015년 1/4분기 14.3%, 2/4분기 6.3% 성장함.

〈그림 Ⅱ-3〉 보장성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




주: 수입보험료 기준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016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 가입률 제고 여파로 인한 수요축소와 일부 대형 보험회사들이 가격 인상된 보장성보험대신 저축성보험 판매를 늘리면서 6.1% 성장이 전망됨.

○ 2015년 중 표준이율하락에 의해 다수 보험회사들이 예정이율을 인상함에 따라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가격이 오름.

- 인구노령화, 일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사망보험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종신보험의 가격인상은 높은 가입률과 함께 2016년 수요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2015년 하반기 일부 보험회사들은 종신보험의 가격인상에 맞춰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해지환급금도 낮춘 저(무)해지환급금형 종신보험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음.

○ 2016년에도 저금리가 전망됨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상품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보장성보험의 가격은 인상 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종신보험 가격인상은 당분간 수요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업계의 저(무)해지환급금형 보장성보험 개발은 향후 귀추가 주목됨.

○ 또한 종신보험 판매를 선도해왔던 일부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된 보장성보험 대신 저축성보험도 판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질병보험 등 건강보험은 보험금지급률 증가에 따른 판매 축소, 가격 인상 등으로 저성장 지속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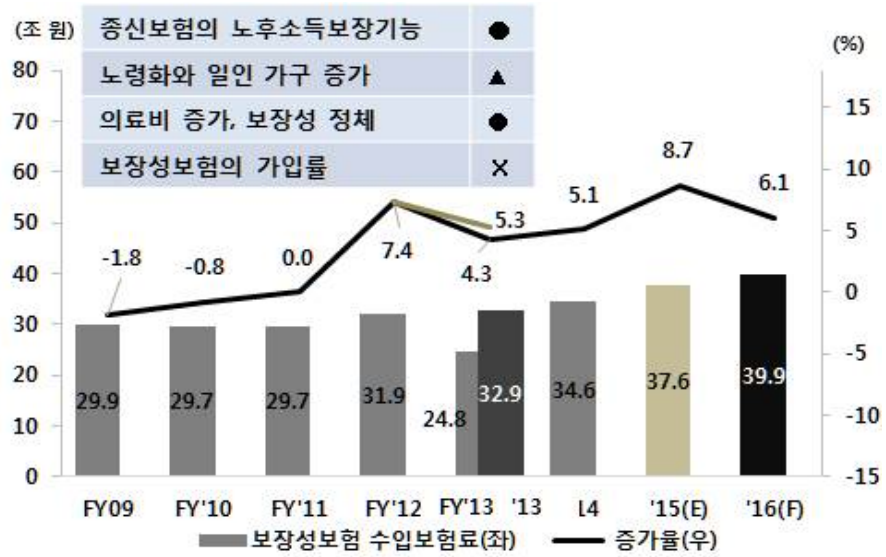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에 불구하고 의료비 증가 추세로 실질 보장성은 답보하거나 하락하여 소비자의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인구고령화와 기대수명연장에 따라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보험금지급률 악화, 가격인상 요인 등으로 인해 공급이 부진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10월 발표된 감독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로드맵」에 의하면 가격자율화가 2016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까지 최종적으로 완전히 보험상품개발에 있어 규제가 철폐되거나 완화될 예정임.

○ 2016년부터 표준이율, 표준위험률, 표준약관 등 사전적 감독 및 규제를 제거 및 완화를 통해 사후적 감독 및 규제로 전환되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보장성보험상품 가격은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될 것이므로 보장성보험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그림 Ⅱ-4〉 보장성보험 성장률과 수입보험료 전망




주: 1) FY'11실적에는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13은 2013년 1~12월 실적임.

▒ 또한 2016년에도 경제성장률 회복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종신보험을 위시한 보장성보험 가입률[16]도 제고되어 보장성보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2) 저축성보험(생존 · 생사혼합 · 변액연금 · 변액유니버셜)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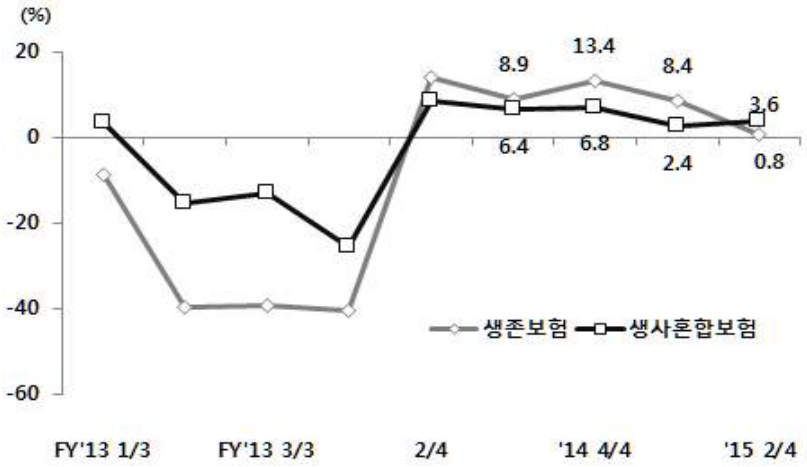
▒ 2015년 저축성보험은 저금리 심화로 인한 금리경쟁력 약화와 판매수수료분급 체계 확산에 따라 판매 유인이 감소하였으나 지난 3년간 역성장의 기저효과로 인해 4.0% 성장이 예상됨.

16) 생명보험 가구가입률 83.0%(2013년) → 85.8%(2014년) → 87.2%(2015년)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2014년 2/4분기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성장으로 반전되었으나 보험회사들이 금리리스크 부담에 따라 판매를 축소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연금저축의 경우 2015년 4월에 실시된 연금저축 이전 간소화 조치로 인한 금융권 간 유치 경쟁 심화가 계속보험료 성장 저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그림 Ⅱ-5〉 일반저축성보험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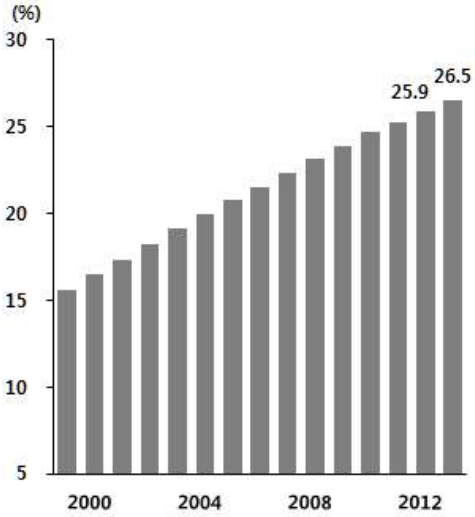



주: 수입보험료 기준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도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금리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의 금리리스크 부담에 따라 판매 축소가 이어지면서 저성장을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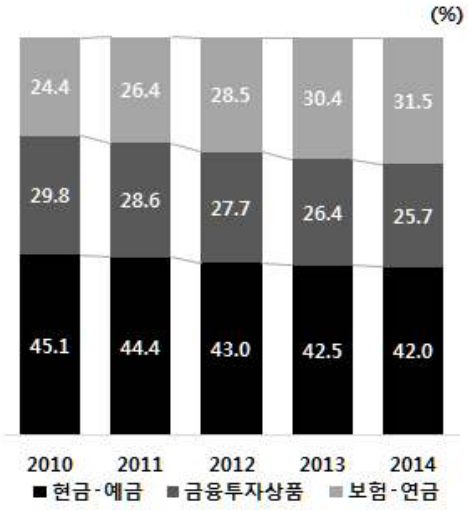
-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저축성보험의 예정이율 하락도 이어지면서 생사혼합보험의 금리경쟁력이 약화되었으나 최저보증이율 하락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금리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노령화의 진행과 일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노후소득 마련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면서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증가로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은 2012년 금융투자상품 비중을 넘어서면서 현금 및 예금 자산의 비중을 추격하고 있음.

〈그림 Ⅱ-6〉 1인 가구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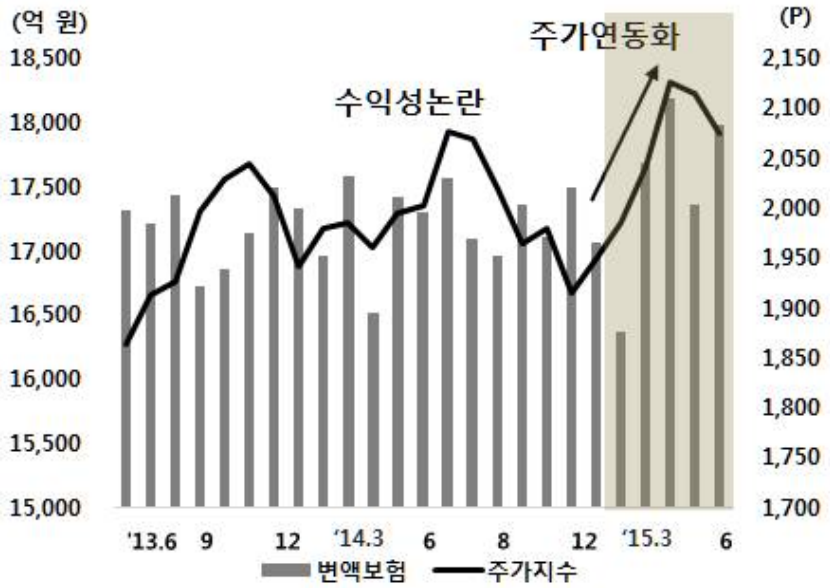
〈그림 Ⅱ-7〉 가계 금융자산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15년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1/4분기 주식시장이 장기간의 박스권 장세를 벗어남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다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임.

〈그림 Ⅱ-8〉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주식시장이 2015년 1/4분기 2,2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변액보험도 성장하였으나 이후 폭락세와 박스권 재진입에 따라 하락세를 보임.

- 변액연금은 2014년 3/4분기 이후에는 한 자리 수로 감소세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음.
- 반면 변액유니버셜은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 설계를 무기로 2015년 1/4분기 2.4%, 2/4분기 9.7%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16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부 대형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강화, 타금융권 대비 상대적 고금리 유지 및 세제 혜택 등의 영향으로 생존보험 중심으로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부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가격이 인상된 보장성보험의 대안으로 저축성보험의 예정이율을 경쟁적으로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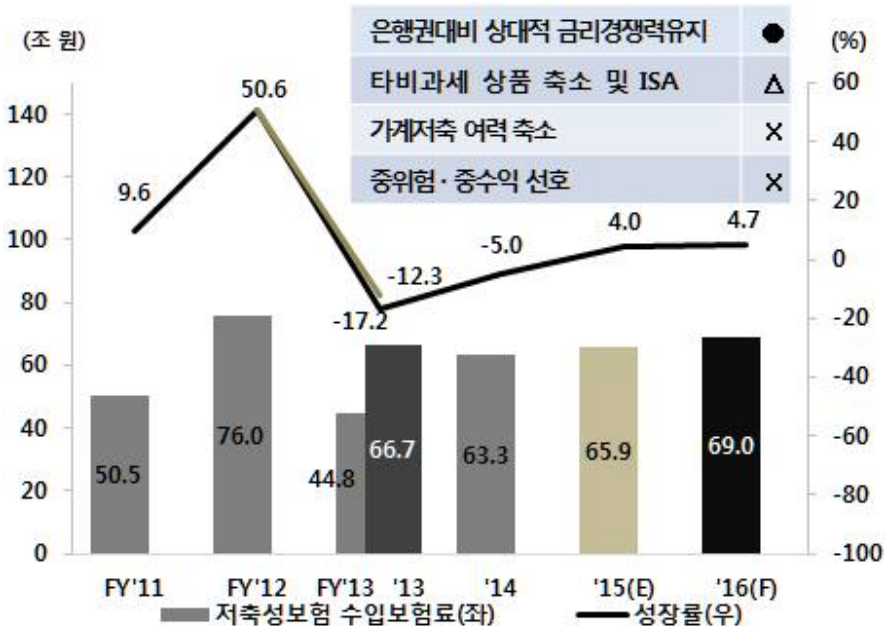
- 일반저축성보험의 경우 2014년 1/4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4년 2/4분기 성장세로 전환되며, 2015년 1/4분기는 5.6%, 2/4분기는 2.1% 성장함.

○ 최근 금리는 기준금리가 1.50%로 하락함에 따라 시중금리도 하락하면서 2014년에 비해 금리경쟁력은 약화되었으나 최저보증이율이 3.25%대로 높아 저축성보험의 금리경쟁력을 유지시켜주고 있음.

○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사라지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2016년 도입되는 등 세제혜택 금융상품 시장은 변화가 있지만 저축성보험은 안정적인 수익률과 세제혜택 기능으로 인해 경쟁력을 유지할 것임.

○ 그러나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률 하락은 저축성보험 운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경기회복 지연, 가계소득 증가율 부진 등의 저축여력 감소로 저축성보험 성장률 회복은 제한적일 것임.

〈그림 Ⅱ-9〉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주: 1) FY'12 이후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13은 2013년 1~12월 실적임.

○ 변액저축성보험은 융통성있는 자금흐름을 설계할 수 있는 변액유니버셜이 성장하겠으나 변액연금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불확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Ⅱ-1〉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 전망

(단위: 억 원, %)

| 종 목 | FY2013 | | 2014 | | 2015(E) | | 2016(F)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보장성 | 248,094 | 4.3 | 346,027 | 5.1 | 376,105 | 8.7 | 399,216 | 6.1 |
| 저축성 | 448,383 | -17.2 | 633,355 | -5.0 | 658,863 | 4.0 | 689,985 | 4.7 |
| 개인계 | 696,477 | -10.6 | 979,382 | -1.7 | 1,034,968 | 5.7 | 1,089,201 | 5.2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은 변액종신 포함, 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포함.
3)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함.

## 나. 단체보험 현황과 전망

▒ 2015년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2015년 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70%) 효과가 지속되고 1월 IRP 세액공제 실시와 금리 하락에 따른 적립금 추가 납입으로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 2015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17] 비율 의 단계적 상향[18] 조정 효과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단계적 축소[19] 효과가 이어지면서 상반기만 18.4%의 성장률을 보임.

○ 2015년 1월 IRP에 대한 300만 원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IRP 계정의 적립금이 1/4분기 말 생명보험 68.8%, 은행 206.6%, 증권 170.3% 증가함.

▒ 2005년 퇴직연금제 도입 후 생명보험권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2007년 9월 48.8%로 최대였으나 이후 2012년까지 지속 하락하였으며, 2015년 6월 현재 25.3%로 최근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따라 소폭 회복에 그침.

○ 인구고령화 진행, 1인 가구 증가와 사적연금 확대 정책에 따른 은퇴시장의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하락과 상품다양성 부족으로 보험권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은 하락 추세임.

○ 보험권 내 시장집중도도 높아 규모의 경제가 없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업권을 반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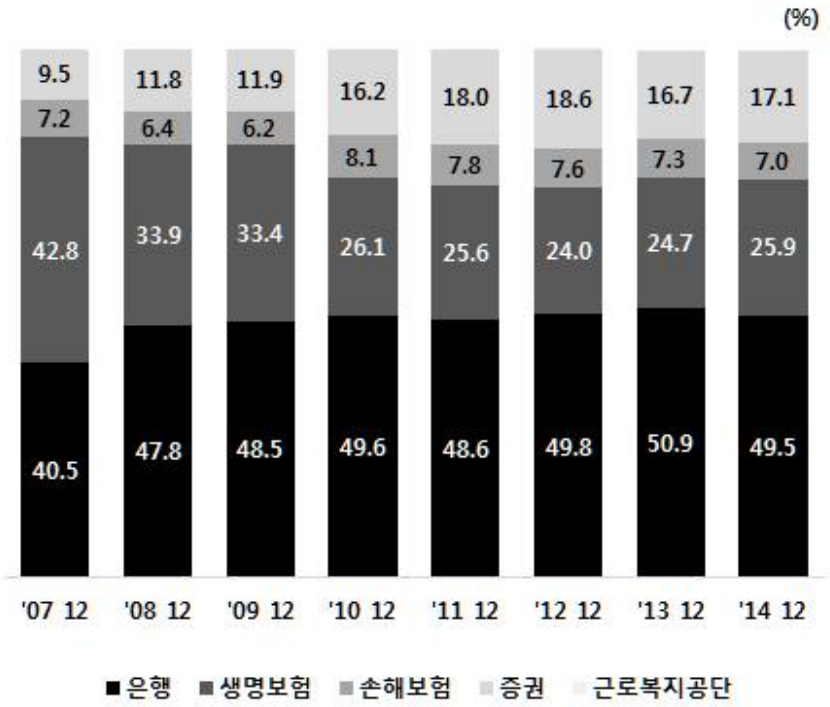
---

1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를 실시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준책임준비금의 소정 비율 이상을 매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함.

18) 최소적립비율은 2012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60%,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70%,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80%, 2018년 1월 1일 이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80% 이상의 비율임.

19)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이 매년 5%씩 축소되어 2016년 초부터 완전히 폐지됨(2013년 15%, 2014년 10%, 2015년 5%, 2016년 이후 0%).

〈그림 Ⅱ-10〉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 2016년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의 부진에도 정년제 실시와 퇴직연금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작될 경우 퇴직연금 위주로 31.6% 성장할 전망임.

○ 일반단체보험은 기업의 퇴직연금제 부담금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축소와 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2016년 퇴직연금 시장은 정부안으로 예정되어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가 의무적으로 도입[20]될 경우 급속히 확대될 전망임.

○ 또한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IRP 퇴직연금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가 시작되면서 성장세가 확대되었음.

○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의 60세 정년제 도입[21]도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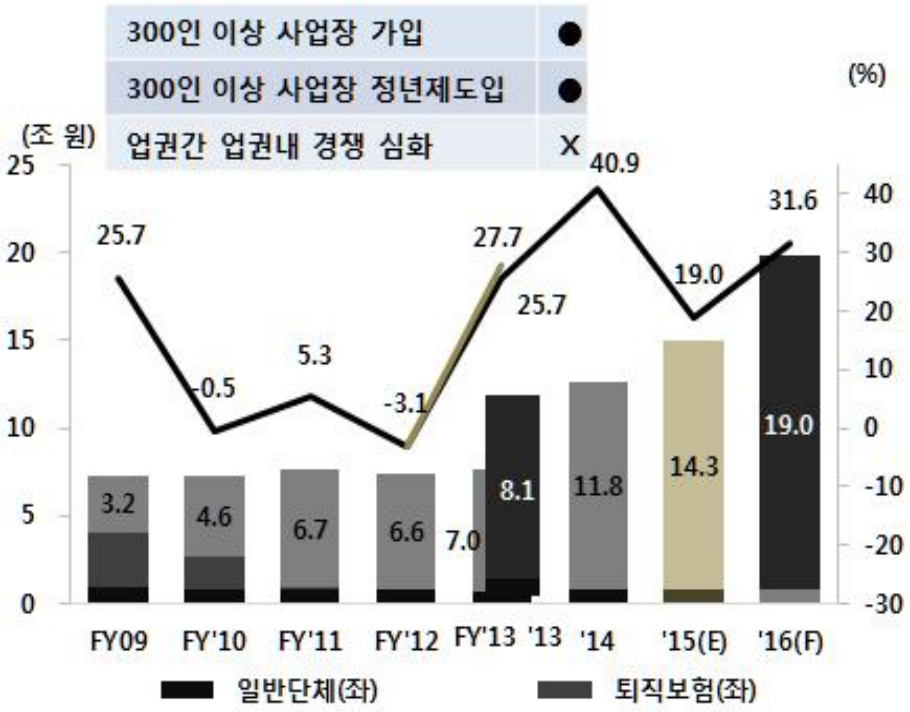
---

20)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한 근퇴법개정(안)이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안)과 새정치민주연합(안)이 경합하고 있음.

21) 2013년 5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공기업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2016년부터 그 외의 사업장은 2017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늘리게 됨.

– 한편 정년제가 도입될 경우 임금피크제 확산으로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중간정산도 유발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상품에 대한 수요가 창출될 것임.

〈그림 Ⅱ-11〉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주: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13은 2013년 1~12월 실적임.

## 다. 생명보험 종합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모두 성장하여 전체적으로는 7.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개인보험은 보장성보험의 지속적인 성장과 저축성보험의 성장세 회복의 영향으로 5.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단체보험은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에 따라 19.0%의 고성장이 예상됨.

▒ 2016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이 소폭 성장하고, 퇴직연금제도가 대기업 위주로 가입 의무화가 될 경우 단체보험도 성장하여 전체적으로는 2015년에 비해 1.4%p 상승한 8.6% 성장이 전망됨.

○ 개인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의 제한된 성장과 저축성보험의 성장세 회복으로 5.2% 성장이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가격인상과 종신보험 가입률 제고 여파로 수요가 둔화되고, 일부 대형보험회사들의 저축성보험 판매 강화로 성장이 축소되어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 가격인상, 상대적 고금리 유지 및 세제 혜택 등으로 생존보험 중심의 일반저축성 보험 수요 회복이 전망되나, 저금리 지속, 경제회복 지연, 가계소득 증가율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저축여력이 감소되면서 4.7%의 성장이 전망됨.

○ 단체보험의 경우 일반단체보험은 감소할 것이나 퇴직연금제의 단계적 전환, 300인 이상의 기업 정년제 실시 등으로 인한 퇴직연금 시장 확대가 예상되어 31.6%의 고성장이 전망됨.

▒ 그러나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2016년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2015년보다 둔화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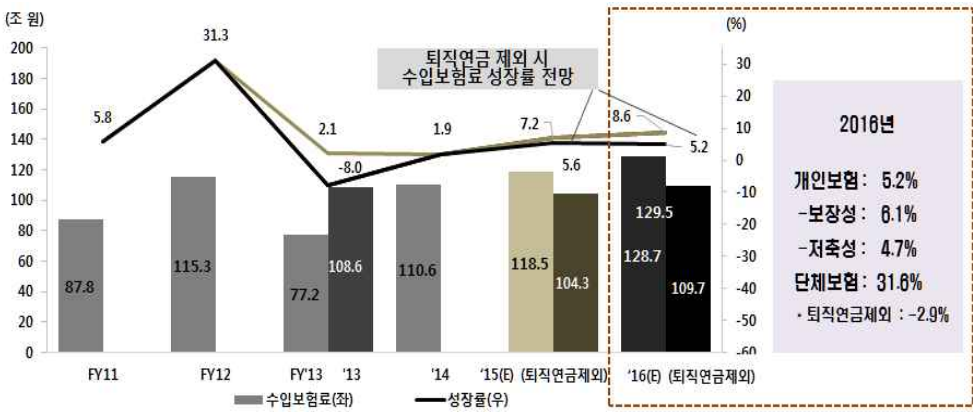
〈표 Ⅱ-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종합

(단위: 억 원, %)

| 종 목 | FY2013[1)] | | 2014 | | 2015(E) | | 2016(F)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개 인 | 696,477 | -10.6 | 979,382 | -1.7 | 1,034,968 | 5.7 | 1,089,201 | 5.2 |
| 단 체 | 75,891 | 25.7 | 126,371 | 40.9 | 150,367 | 19.0 | 197,876 | 31.6 |
| 합 계 | 772,367 | -8.0 | 1,105,753 | 1.9 | 1,185,335 | 7.2 | 1,287,077 | 8.6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은 변액종신 포함, 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포함.
3) FY2013 보험료는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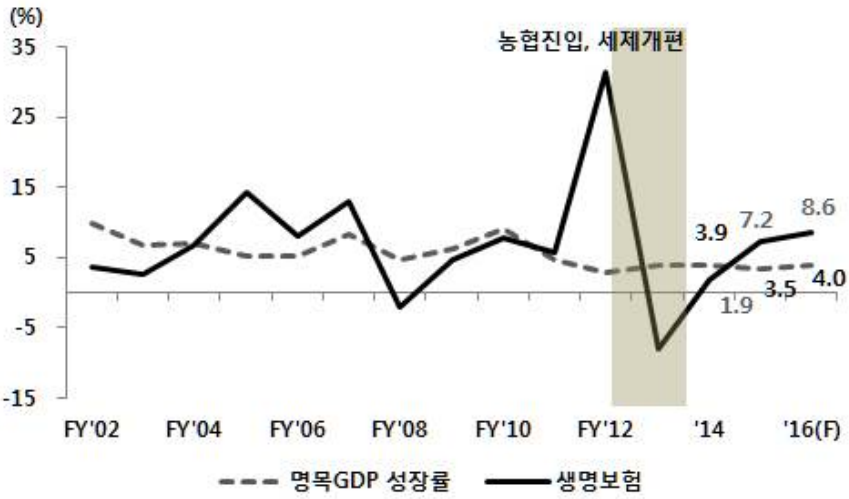
〈그림 Ⅱ-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주: 1) FY'12부터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2) 2015(E)는 2015년 1~12월이고 '16(F)는 2016년 1~12월까지임.
3) CY'13은 2013년 1~12월임.

2015년 생명보험 성장률은 명목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6년에 역시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Ⅱ-13〉 명목GDP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2016년 생명보험 전망에는 몇 가지 위험요인이 존재함.

○ 첫째, 보장성보험의 경우 2015년 종신보험 가격인상, 2016년 보험가격 자율화 시행에 따른 보장성보험 가격조정 등은 수요창출의 제한요인이 될 수 있음.

○ 둘째, 일반 저축성보험의 경우 2016년에도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자산운용수익률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 경쟁력 유지가 관건이 될 것임.

○ 셋째, 변액저축성보험은 대내외적인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시장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경우 보유계약 유지조차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 넷째,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예정된 퇴직연금제로의 단계적 전환에 차질을 빚어질 경우 시장 성장에 지연이 초래될 수 있으며, 또한 정년제 도입에 따른 임금피크제 확산도 시장 축소 요인이 될 수 있음.

# 2. 손해보험

## 가. 장기손해보험

▒ 2015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저축성보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 상해, 질병, 운전자, 재물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이 늘어나 전년대비 5.7% 증가가 예상됨.

○ 장기저축보험은 공시이율 하락으로 신규수요가 위축되고 저금리 리스크 확대로 보험회사의 판매 부담도 늘어나 감소세를 보임.

○ 장기상해·질병보험은 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금 상향 조정,[22] 예정이율 인하 예상 등으로 제도 변경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선수요가 나타나 증가세를 보임.

○ 장기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관련 법률 및 행정비용 부담 확대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확대된 데다 양호한 손해율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판매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어 증가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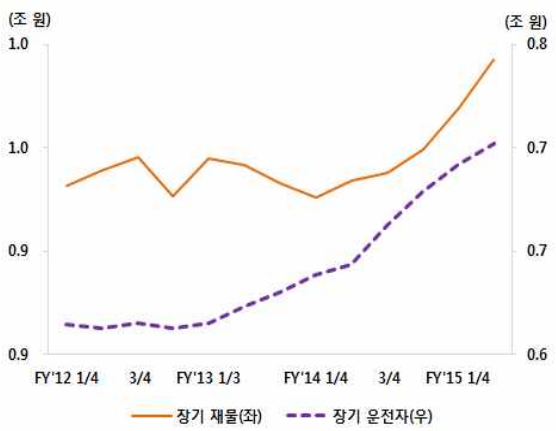
○ 장기재물보험의 경우 저금리 리스크 확대와 높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다른 장기손해보험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을 분산시키기 위한 일부 보험회사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임.

22) 2015년 9월부터 비급여 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됨.

〈그림 Ⅱ-14〉 상해 · 질병, 저축성 원수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Ⅱ-15〉 재물, 운전자 원수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장기상해 및 질병보험 증가세 둔화와 장기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2015년 증가율보다 0.3%p 하락한 5.4%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상해 및 질병보험의 경우 예정이율 인하 전망으로 2015년 하반기 선수요가 반영된 데다 예정이율 인하와 높은 실손의료보험 가입률 등 수요 확대에 부정적인 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증가율이 둔화될 것임.

- 신규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금 상향 조정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23]와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신규수요 확대를 들 수 있음.

○ 장기저축성보험은 낮은 공시이율, 저금리 리스크, 저축 여력 개선의 어려움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 보험료 조정에 따른 반사 이익과 비과세 혜택 등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이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

23) 비급여 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이전 가입자들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남.

〈표 Ⅱ-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 종 목 | FY2013[2] | | 2014 | | 2015(E)[1),2)] | | 2016(F)[1),2)]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상해·질병 | 142,314 | 16.1 | 213,233 | 14.3 | 242,891 | 13.9 | 268,499 | 10.5 |
| 저축성 | 89,300 | -4.3 | 117,617 | -2.4 | 108,432 | -7.8 | 104,716 | -3.4 |
| 재 물 | 28,198 | 0.1 | 37,476 | 0.0 | 39,870 | 6.4 | 41,591 | 4.3 |
| 기 타[3] | 55,666 | 1.1 | 75,710 | 1.5 | 78,240 | 4.3 | 79,814 | 2.8 |
| 장기손보 | 315,478 | 5.6 | 444,037 | 6.1 | 469,433 | 5.7 | 494,621 | 5.4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 2015(E), 2016(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3)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 나. 연금부문(개인 및 퇴직연금)

▒ 2015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성장 여력 약화로 1.7% 감소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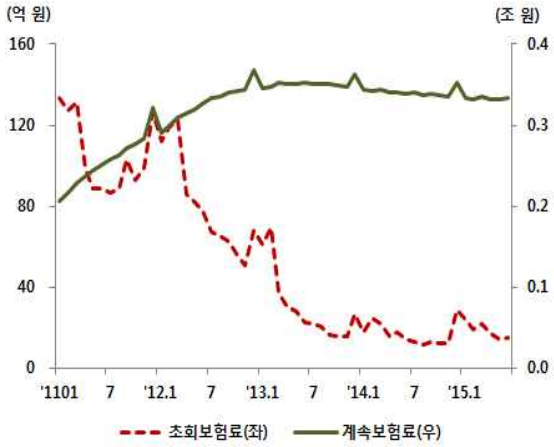
○ 2015년 상반기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되어 계속된 초회보험료 감소세는 둔화되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지속된 초회보험료 감소세로 성장 여력이 약화되어 있어 전체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역성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

▒ 2016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큰 폭의 신규수요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0.2% 감소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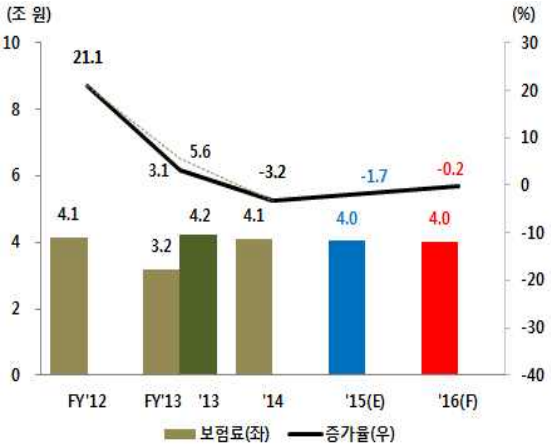
○ 세액공제 혜택, 사적연금 활성화 노력 등 신규수요 확대 요인이 있으나 여전히 성장 여력이 약화되어 있고,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등 금융권 간 경쟁 심화 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시장이 정체될 것으로 보임.

〈그림 Ⅱ-16〉 개인연금 보험료(월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Ⅱ-17〉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의 경우 은퇴 이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계속됨에 따라 2015년 26.2%와 2016년 28.6%의 고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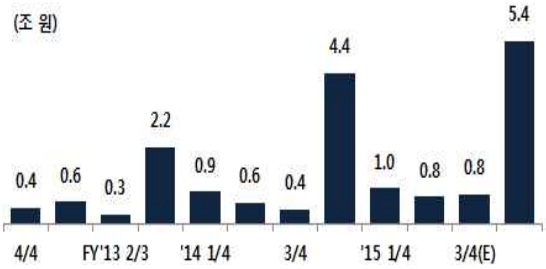
○ 2015년부터 퇴직연금 추가 납입분에 대한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이 2015년 말까지 70%, 2017년 말까지 80%로 상향 조정될 것임.

○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의무가입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퇴직연금 사업자들 간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대한 보험회사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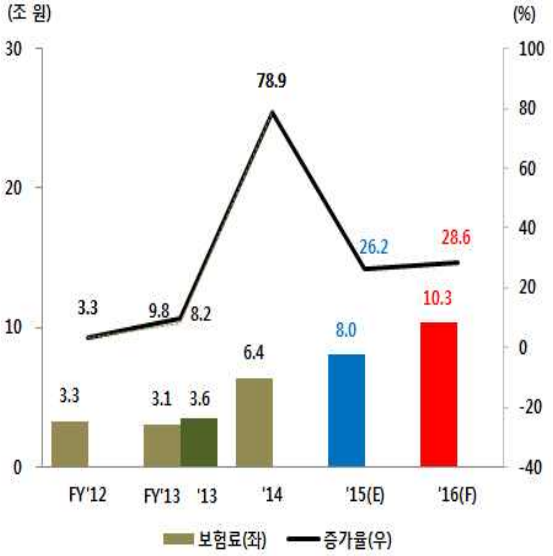
〈그림 Ⅱ-18〉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분기별)




〈그림 Ⅱ-19〉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비중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Ⅱ-20〉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Ⅱ-4〉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 종 목 | FY2013[2] | | 2014 | | 2015(E)[1),2)] | | 2016(F)[1),2)]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개인연금 | 31,829 | 3.1 | 41,090 | -3.2 | 40,375 | -1.7 | 40,310 | -0.2 |
| 퇴직연금 | 31,152 | 9.8 | 63,718 | 78.9 | 80,413 | 26.2 | 103,441 | 28.6 |
| 합 계[3)] | 62,991 | 6.3 | 104,809 | 34.2 | 120,788 | 15.2 | 143,752 | 19.0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 2015(E), 2016(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 다. 자동차보험

▒ 2015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14년 시행된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와 대물담보[24] 가입금액 증가세 지속으로 7.1% 증가가 전망됨.

24)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보험자의 상대방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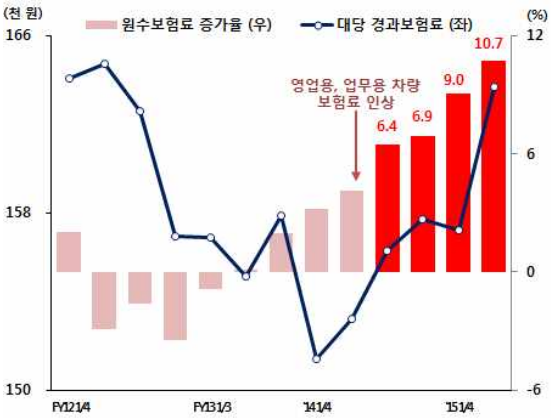
○ 2014년 4월 이후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었으며, 2015년 갱신 시기가 도래한 가입자에게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됨.

○ 수입차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대물담보 가입금액이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2010년 2.9%에 불과하였던 수입차 비중이 2014년 말 5.5%, 2015년 9월 말 6.3%까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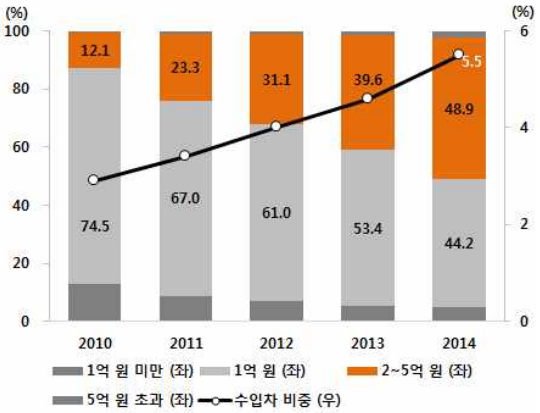
○ 한편, 8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하반기 자동차 판매 증가[25]도 원수보험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그림 Ⅱ-21〉 대당경과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그림 Ⅱ-22〉 수입차비중과 대물담보 가입금액




자료: 보험개발원; 국토교통부.

▒ 2016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2014년에 이루어진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가 소멸된 가운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의존한 3.4% 증가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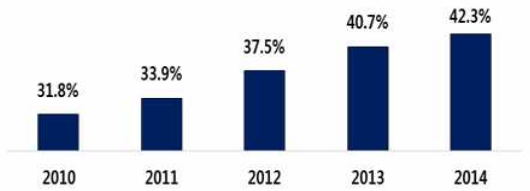
○ 2015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에 대한 기저효과가 예상되며, 온라인 판매 확대와 요율 할인 경쟁 등 대당보험료 감소 요인이 원수보험료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5) 2015년 8월 27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이후 9월 국산자동차 판매량이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 10. 25)).

○ 단, 고가차량 비중 확대로 인한 대물 및 자차담보[26] 가입금액 확대 추세는 계속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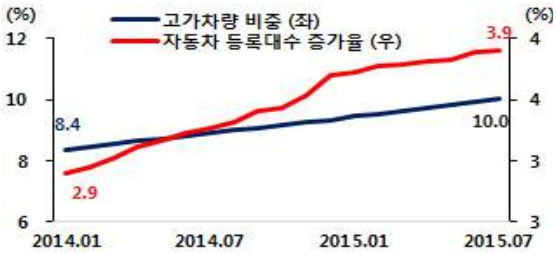
○ 한편, 높은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보험료 인상이 전체 손해보험회사로 확대될 경우 예상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일 수 있음.

〈그림 Ⅱ-23〉 자동차보험 온라인 채널 비중




자료: 보험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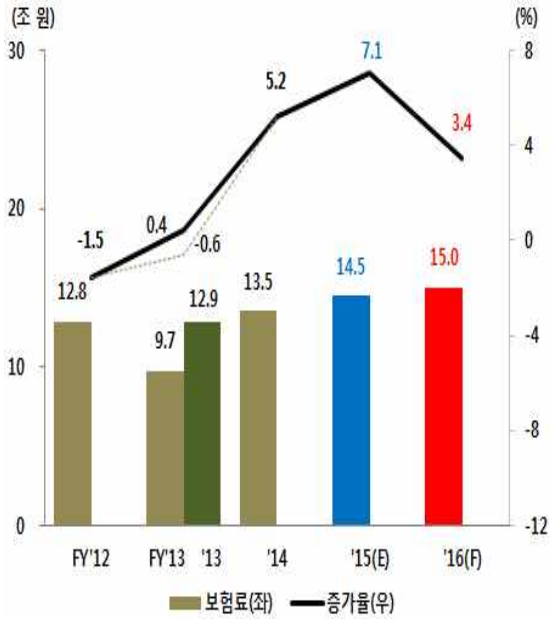
〈그림 Ⅱ-24〉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및 고가차량[1] 비중




주: 1) 고가차량 비중=(승용일반형 외산 소계+국산 3000CC 이상 승용차 합계) / 승용차 합계.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Ⅱ-2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Ⅱ-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 종 목 | FY2013[1] | | 2014 | | 2015(E)[1] | | 2016(F)[1]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자동차 | 97,435 | 0.4 | 135,484 | 5.2 | 145,037 | 7.1 | 150,026 | 3.4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 2015(E), 2016(F)은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26) 사고로 피보험자의 자동차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함.

## Box 4 자동차보험 관련 이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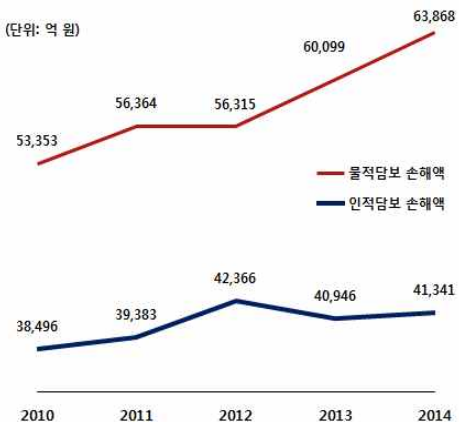
▒ 최근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입차 비중 확대 추세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물적담보 손해액 가운데 특히 대물담보 보험금 지급액이 2012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사고 발생률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물손해 보험금 지급액 증가 원인은 수입차 중심의 고가차 비중 확대로 인한 수리비, 렌트비, 추정수리비 증가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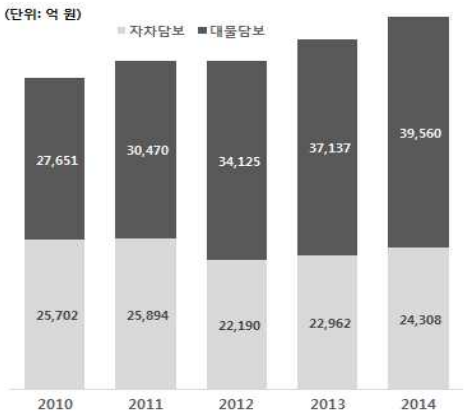
○ 한편, 고가차와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 위험이 늘어남에 따라 운전자들이 대물배상 보험가입 한도를 증액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Ⅱ-26〉 최근 담보별 손해액 증가 추이




주: 물적담보 손해액은 대물담보와 자차담보 합계액임.

〈그림 Ⅱ-27〉 물적담보 보험금 지급 규모 추이




▒ 수입차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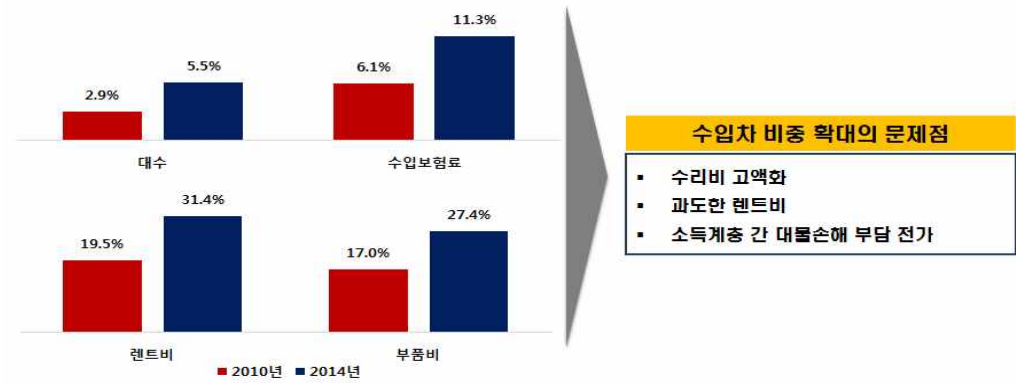
1) 전용식(2015. 10. 19), "자동차보험의 시장기능 활성화: 유럽의 사례", 보험연구원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세미나 자료를 발췌, 요약함.

## Box 4 자동차보험 관련 이슈 (계속)

○ 수입차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렌트비와 수리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심화, 저가차 운전자의 경제적 파산위험 확대와 보험료 부담 가중에 의한 형평성 왜곡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차담보 추정 수리비와 렌트비 관련 표준약관 개정, 자차담보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 등이 추진될 계획임.

〈그림 Ⅱ-28〉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수입차 영향력 확대




▒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대물담보 손해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제도 개선 효과의 지속성은 의문시되고 있음.

▒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보험 시장의 가격기능 제고가 필요함.

○ 시장 상황에 따른 보험료 조정은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과 보험회사의 영업적자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보험상품과 요율 규제를 철폐한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의 경우 요율 규제 철폐 이후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하향 안정화 되었으며,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라. 일반손해보험

▒ 2015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FY2013~2014년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가 예상되나 전반적인 경기회복 지연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2.7% 증가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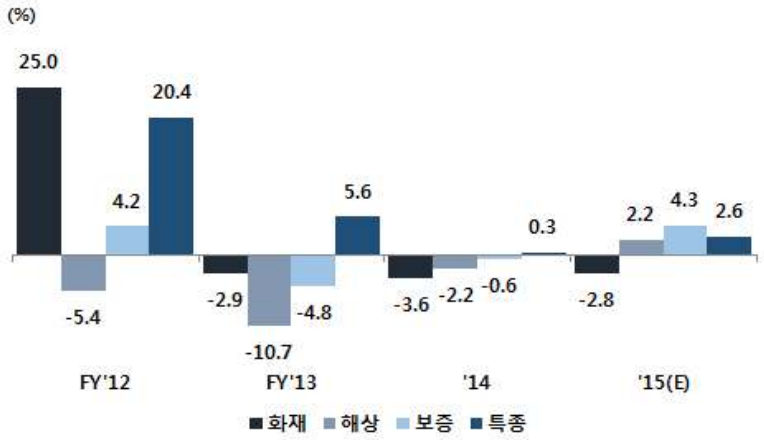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확대 수요[27]가 다른 종목으로 분산[28]됨에 따라 2.8% 감소가 예상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2012년 이후 지속된 감소세에 대한 기저효과로 2.2% 증가가 예상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2013년과 2014년 이루어진 요율 조정 및 요율 할인 효과 소멸과 전세가 상승에 따른 전세자금대출보증보험 실적 확대 등으로 4.3% 증가가 전망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상해보험, 책임보험, 기업성 종합보험을 중심으로 2.6% 늘어날 것임.

〈그림 Ⅱ-29〉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주: FY2013은 2013년 4월~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월~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

27) 2013년 3월「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으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28) 다수 보장을 제공하는 특종보험의 종합보험, 장기 재물 및 통합보험으로 화재보험 수요가 분산되고 있음.

▒ 2016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민간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정체 및 다른 종목으로의 수요 분산 효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2.5% 감소가 전망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해운업 업황 악화에 따른 요율 하향 조정 등이 예상되어 0.5%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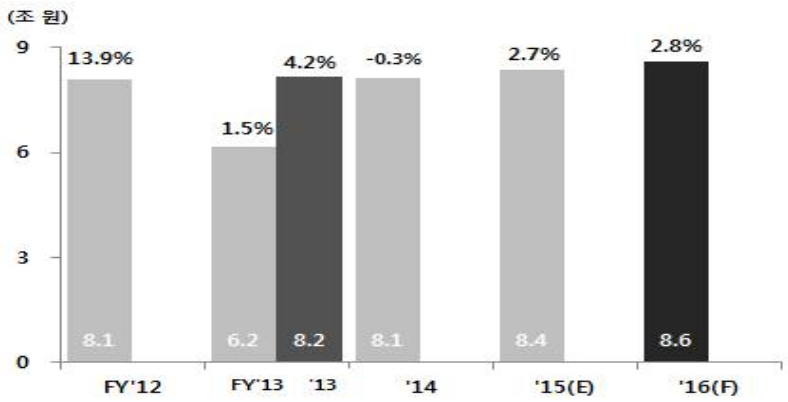
- 해상보험 주요 수요 계층인 해운업은 국제무역 물동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29]하는데, 최근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어 적하보험과 선박보험 수요도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투자 둔화, 경기회복 지연, 2015년 증가세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1.1% 성장하는 데 그칠 전망임.

○ 특종보험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 확대와 일부 종목의 의무 가입 및 요율 인상 등에 힘입어 3.8% 증가가 전망됨.

- 다만, 상해 보험료 책정기준 세분화에 따른 요율 인상 및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및 환경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등이 예정되어 있으나 비중이 크지 않아 전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그림 Ⅱ-30〉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1) FY2013은 2013년 4월~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월~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

29) 구종순(2012), 「해상운임 변동보험의 개발」, 『해운물류연구』, Vol. 73, pp. 437~461.

〈표 Ⅱ-6〉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 종목 | FY2013[2] | | 2014 | | 2015(E)[1],[2] | | 2016(F)[1],[2]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화재 | 2,413 | -2.9 | 3,106 | -3.6 | 3,019 | -2.8 | 2,945 | -2.5 |
| 해상 | 6,016 | -10.7 | 7,343 | -2.2 | 7,502 | 2.2 | 7,543 | 0.5 |
| 보증 | 11,238 | -4.8 | 15,152 | -0.6 | 15,797 | 4.3 | 15,966 | 1.1 |
| 특종[3] | 42,012 | 5.6 | 55,823 | 0.3 | 57,291 | 2.6 | 59,477 | 3.8 |
| 합계 | 61,679 | 1.5 | 81,424 | -0.3 | 83,609 | 2.7 | 85,931 | 2.8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 2015(E), 2016(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3)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 마. 손해보험 종합

▒ 2015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과 퇴직연금 호조세에 힘입어 6.9% 증가가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저축성보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대비 5.7% 증가가 예상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성장 여력 약화로 1.7%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은퇴 이후 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26.2% 증가가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14년에 미반영된 자동차보험료 인상분 반영과 대물담보 가입금액 증가세 등으로 7.1% 증가할 것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보험 역성장과 더불어 다른 종목들의 실적 개선세도 크게 나타나지 않아 2.7% 증가가 예상됨.

▒ 2016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 고성장에 힘입어 6.8% 증가가 전망되나, 퇴직연금 이외의 다른 종목들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퇴직연금 실적을 제외하면 4.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상해 및 질병보험 증가세 둔화와 장기저축성 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2014년 증가율보다 0.3%p 하락한 5.4%가 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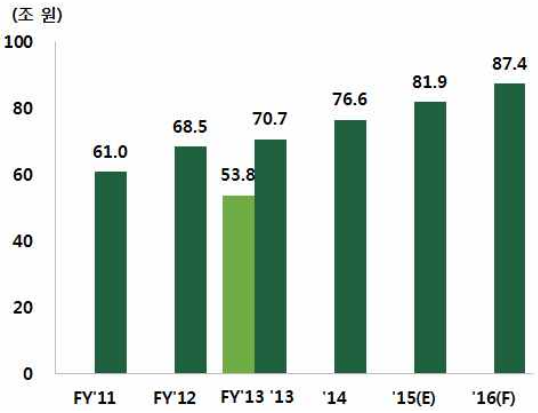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큰 폭의 신규수요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0.2% 감소가 예상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 추가납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300만 원 제공, 확정급여형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 300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추진 등으로 28.6%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상 효과 소멸과 요율 할인 경쟁 지속, 온라인 판매채널 증가세 등으로 3.4% 성장하는 데 그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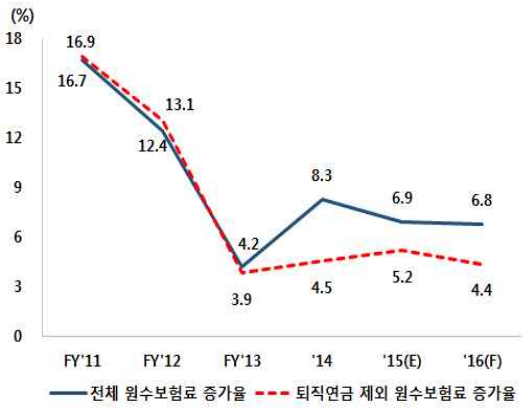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보험 역성장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부진으로 2.8%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그림 Ⅱ-3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Ⅱ-3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Ⅱ-7〉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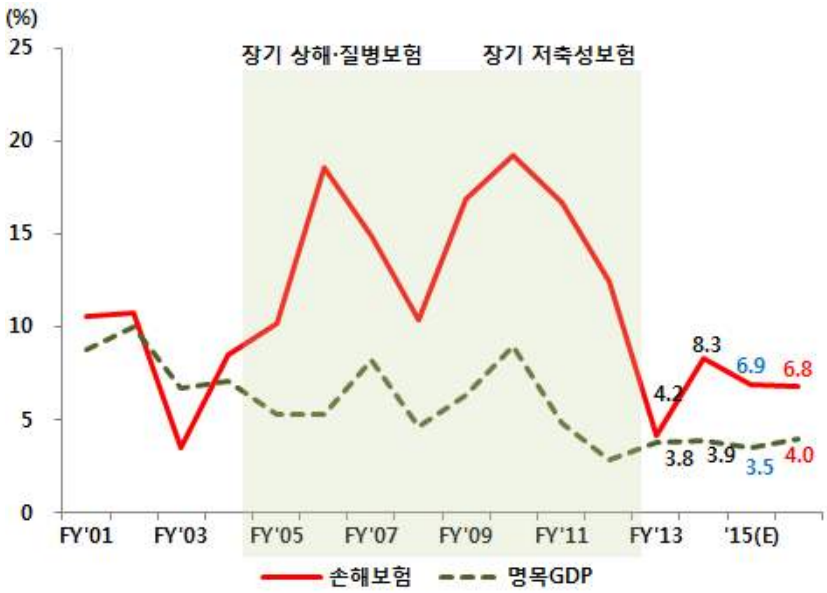
| 종 목 | FY2013[2] | | FY2014 | | 2015(E)[1),2)] | | 2016(F)[1),2)]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장기손보 | 315,478 | 5.6 | 444,037 | 6.1 | 469,433 | 5.7 | 494,621 | 5.4 |
| 상해·질병 | 142,314 | 16.1 | 213,233 | 14.3 | 242,891 | 13.9 | 268,499 | 10.5 |
| 저축성 | 89,300 | -4.3 | 117,617 | -2.4 | 108,432 | -7.8 | 104,716 | -3.4 |
| 재물 | 28,198 | 0.1 | 37,476 | 0.0 | 39,870 | 6.4 | 41,591 | 4.3 |
| 기타 | 55,666 | 1.1 | 75,710 | 1.5 | 78,240 | 4.3 | 79,814 | 2.8 |
| 연금부문 | 62,991 | 6.3 | 104,809 | 34.2 | 120,788 | 15.2 | 143,752 | 19.0 |
| 개인연금 | 31,829 | 3.1 | 41,090 | -3.2 | 40,375 | -1.7 | 40,310 | -0.2 |
| 퇴직연금 | 31,152 | 9.8 | 63,718 | 78.9 | 80,413 | 26.2 | 103,441 | 28.6 |
| 자동차 | 97,435 | 0.4 | 135,484 | 5.2 | 145,037 | 7.1 | 150,026 | 3.4 |
| 일반손보 | 61,679 | 1.5 | 81,424 | -0.3 | 83,609 | 2.7 | 85,931 | 2.8 |
| 화재 | 2,413 | -2.9 | 3,106 | -3.6 | 3,019 | -2.8 | 2,945 | -2.5 |
| 해상 | 6,016 | -10.7 | 7,343 | -2.2 | 7,502 | 2.2 | 7,543 | 0.5 |
| 보증 | 11,238 | -4.8 | 15,152 | -0.6 | 15,797 | 4.3 | 15,966 | 1.1 |
| 특종[4)] | 42,012 | 5.6 | 55,823 | 0.3 | 57,291 | 2.6 | 59,477 | 3.8 |
| 전 체 | 537,582 | 4.2 | 765,754 | 8.3 | 818,867 | 6.9 | 874,329 | 6.8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 2015(E), 2016(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3)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4)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 2016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6.8%)은 명목 경제성장률(4.0%)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성장이 예상되는 퇴직연금을 제외(4.4%)하면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FY2004 이후 장기손해보험 고성장에 힘입어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나, FY2013 이후 장기손해보험 성장 동력이 약화됨에 따라 증가율이 이전과 비교하여 낮아짐.

〈그림 Ⅱ-3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명목경제성장률 전망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 2015(E), 2016(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 한편, 이러한 전망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 첫째, 장기손해보험은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수요위축과 저금리로 인한 판매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증가율이 더 많이 둔화될 수 있음.

○ 둘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변화, 공정경쟁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 강화, 금융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하여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상 여부, 자동차 내수시장 변화, 대물담보 확대 추세 강화를 위험요인으로 꼽을 수 있음.

○ 일반손해보험은 낮은 경제성장률 지속에 따른 수요 위축이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3. 보험산업 종합

▒ 2016년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료[30] 증가율이 모두 명목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7.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Ⅱ-8〉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 구 분 | FY2013[2] | | 2014[2] | | 2015(E)[1] | | 2016(F)[1]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생명보험 | 77.2 | -8.0 | 110.6 | 1.9 | 118.5 | 7.2 | 128.7 | 8.6 |
| 손해보험 | 53.8 | 4.2 | 76.6 | 8.3 | 81.9 | 6.9 | 87.4 | 6.8 |
| 전 체 | 131.0 | -3.4 | 187.2 | 4.4 | 200.4 | 7.1 | 216.1 | 7.8 |
| 명목경제성장률 | 4.0 | | 3.9 | | 3.5 | | 4.0 |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

▒ 2016년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31](총보험료/명목GDP)의 경우 2015년 보험산업 성장률이 2015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5년 보험침투도와 유사한 13.52%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 침투도는 2015년보다 0.34%p 상승한 8.05%, 손해보험 침투도는 0.14%p 상승한 5.4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30) 생명보험은 수입보험료 기준이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31) 보험침투도는 명목GDP 대비 보험료의 비율을 가리키는데, 이는 한 국가의 보험 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수치임.

〈표 Ⅱ-9〉 보험침투도 전망[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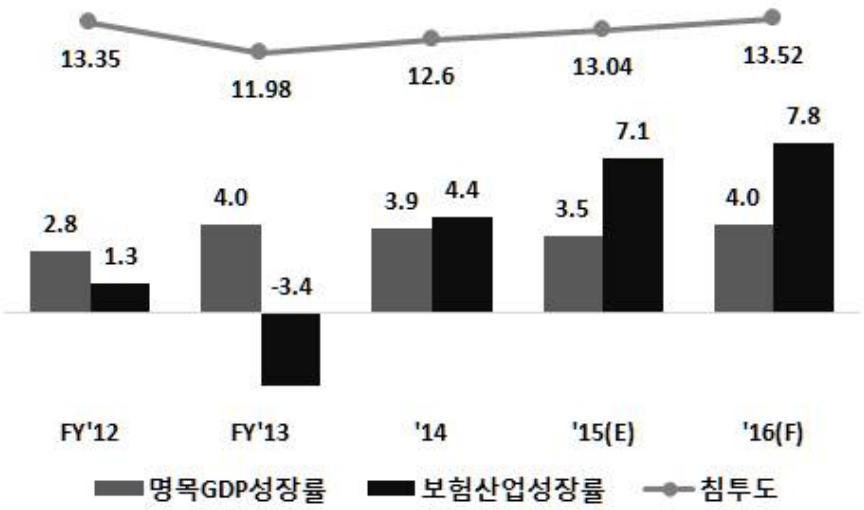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 FY2012 | FY2013[4)] | 2014 | 2015(E)[3),5)] | 2016(F)[3),5)] |
|---|---|---|---|---|---|
| 생명보험 | 8.32 | 7.06 | 7.45 | 7.71 | 8.05 |
| 손해보험 | 4.98 | 4.92 | 5.16 | 5.33 | 5.47 |
| 전 체 | 13.35 | 11.98 | 12.60 | 13.04 | 13.52 |

주: 1) 보험침투도 = 총보험료/명목GDP
2) 국민계정체계 개편에 따른 명목GDP를 적용함.
3)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4) FY2013은 2013년 4~12월까지 명목GDP 대비 보험료 비율임.

〈그림 Ⅱ-34〉 보험침투도 추이 및 전망

(단위: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FY2013은 2013년 4~12월까지 명목GDP 대비 보험료 비율임.

▒ 2016년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32)](총보험료/총인구 수)는 425만 5,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밀도는 각각 253만 4,000원, 172만 1,000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32)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는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표 Ⅱ-10〉 보험밀도 전망[1),2)]

(단위: 천 원)

| 구 분 | FY2012 | FY2013[4)] | 2014[4)] | 2015(E)[3),4)] | 2016(F)[3),4)] |
|---|---|---|---|---|---|
| 생명보험 | 2,306.0 | 1,538.0 | 2,192.9 | 2,341.8 | 2,533.5 |
| 손해보험 | 1,370.7 | 1,070.5 | 1,518.6 | 1,617.8 | 1,721.1 |
| 전 체 | 3,676.7 | 2,608.4 | 3,711.5 | 3,959.5 | 4,254.6 |

주: 1) 보험밀도=총보험료 / 총인구 수
2)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 2012년 2월 자료를 사용함.
3)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4)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

# Ⅲ. 보험산업 경영과제

## 1. 저성장 고착화 대응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국내 보험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 악화에 직면

○ 보험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ROE)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

- 2004년부터 10년간 생명보험사의 ROE는 19%에서 6%, 손해보험사의 ROE는 21%에서 9%로 낮아짐.

○ 2015년 대형 보험사 7개사 중 5개사의 주가순자산 비율이 1 이하인데, 이는 향후 보험산업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임을 시사

▒ 국내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는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

○ 구조적인 요인들로 저성장 고착화, 고령화, 기술변화, 규제 등이 있음.

- 저성장 고착화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며, 저금리로 보험료 인상 압력, 금리역마진 지속, 자산운용 수익률 하락 등의 문제에 직면
- 저출산, 고령화는 수입보험료 증가세 둔화, 개인연금과 노후 의료비 증대로 이어짐.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채널경쟁 심화 및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음.
- 보험회사 건전성 규제 강화로 자본 비용이 상승하며 소비자 보호 및 권익 강화로 수익성 압박

▒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비우호적인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영전략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생존전략과 성장전략으로 구분

○ 생존전략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만 하는 전략으로 IFRS 2단계 도입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본금을 확충할 필요

- 자본금 확충 방법은 이익 창출과 이익 잉여금 확보, 주식발행, 후순위채 발행 등이 있음.
- 상품개발, 인수, 판매채널, 자산운용, 보험금 지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효율화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 성장전략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전통사업(변액연금 및 자산관리 서비스) 및 해외진출을 강화할 필요

- 자문업 인가 취득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와 수수료 부과 체계 다변화(후취수수료 부과제도 도입) 등을 통한 변액연금 다양화 방안 등 기존 보험회사의 영역 외에서의 성장을 모색
- 해외사업 진출 확대가 필요하나,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M&A 역량 강화, 중·장기 달러 자금 조달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적 분산 효과를 인정하여 요구자본 경감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

▒ 전사적 리스크 관리하에서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전략이 수립될 필요

○ 상품 개발의 방향은 과거 동질적 상품 제조단계에서 고객의 다양한 보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상품의 종류와 질을 차별화

- 고령화 도래로 연금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연금지급형 상품의 다양화, 노후질병에 대비한 장기간병 보험상품 확대, 생존급부 등 보장상품의 질을 다양화

○ 자산운용 전략은 저금리/저성장 장기화로 수익 제고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안정성을 중시하되 수익을 제고하는 부채 추종형 투자전략(Liability-driven Investment, LDI)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할 필요

- LDI 체계의 핵심은 ALM 체제를 토대로 목표 스프레드(Target Spread)를 명

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데 있음.

- ALM 체제는 부채구조가 만기가 존재하는 채권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리 위험(듀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 수단임.
- 목표 스프레드의 수준은 대주주의 위험인수성향과 위험자본 규모에 달려 있는데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보다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음.
- 따라서 LDI 체제하에서 위험자산 대상 범위를 확대(해외투자, 부동산 투자, 구조화채권 투자, 대안 투자)하여 수익을 제고할 수 있음.

## 2. 금융개혁 체계적 대응

### 가. 일반손해보험 요율산출 및 가격산출 능력 제고

▒ 우리나라 일반손해보험 시장은 경제 저성장으로 인해 시장규모 자체가 정체되어 있으며, 원수보험료도 8.1조 원으로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의 10.6%에 그침.

○ 2014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 증가율은 -0.3%로 성장이 답보된 상태

○ 최근에는 건설 및 해운 경기 부진에 따라 기술 및 해상보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

▒ 이러한 가운데 일반손해보험 협의요율 사용 비중이 매우 높아 요율산출 및 가격산출능력 향상이 저해되고 있음.

○ FY'13년 협의요율 사용 비중은 종목별로 60~99%임.

○ 일반손해보험은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그리고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협의요율을 사용할 경우 신고가 면제되어 보험회사는 협의요율에 의존함으로써 위험평가능력을 배양하지 않고 있음.

▒ 대형 보험회사는 규모와 요율산출 능력을 바탕으로 재보험회사와 주도적으로 협상이 가능

○ 대형 보험회사는 계열사 물건 수주와 브랜드 파워 등으로 경험자료 축적에 유리

○ 주도적 요율협상을 위해 요율산출 능력 배양 필요

▒ 이에 반해 중·소형 보험회사는 스스로 위험을 평가할 능력이 부족하여 요율산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격산출 능력이 필요함.

○ 충분한 경험자료 축적의 한계로 자사요율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위험평가를 통한 요율산출 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울 유인이 적음.

○ 중·소형 보험회사는 여러 재보험회사와 협의를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받는 가격산출능력이 요구됨.

▒ 요율산출 능력 및 가격산출 능력 향상을 위해 보험회사의 자립성, 자율성 및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 (자립성 강화)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필요시 재보험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자율성 강화) 자사경험율, 참조율, 판단요율, 그리고 협의요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함.

○ (내부통제역량 강화) 보험회사는 요율산출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요율을 산출하여야 함.

▒ 보험회사는 위험을 평가하고 다양한 요율을 검토한 후 최적의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시장경쟁이 강화되고 전문업종 중심의 일반손해보험회사로 전환 기대

○ 경험요율, 참조율, 판단요율, 협의요율 모두를 검토하여 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가격인하 기대

○ 자본력과 시장경쟁으로 전문업종 중심의 일반손해보험회사로 전환되어 전문성 강화 기대

## 나. 시장질서 건전화, 보험이해력 증진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 대형 판매채널의 판매자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불건전한 보험판매 질서를 바로잡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 전반의 정책 대응이 요구됨.

○ 이 같은 정책 대응을 목표로 금융당국은 최근 「3단계 보험 판매채널 제도정비 계획안」(2015. 8. 27)을 밝혔음.

- 단기적으로는 업계 자정노력을 통해 보험 판매채널의 불건전 판매 관행을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토록 함.
- 중·장기적으로는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판매자에게 직접 부과하기 위한 제도정비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임.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상대적인 소비자 신뢰도 수준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민원, 계약 유지율 등 소비자 신뢰 관련 주요 지표들이 타업권 또는 국제 비교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임.

- 우리나라 민원 비중은 2015년 상반기 접수된 금융민원 3만 6,133건 가운데 보험이 63.4%(2만 2,892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생명보험 25회차 유지율은 60%를 조금 상회하여 가입 후 2년 이내에 40%가 해약하는 실정임.

○ 2013년 보험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의 전반적 신뢰도는 3.72로 은행(4.10)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 보험산업 국제 신뢰도 조사 결과(Capgemini)에서도 우리나라의 보험소비자 경험신뢰지수(CEI, 30개국)는 2년 연속 29위를 기록함.

▒ 보험 산업 내 가격 통제가 지속됨에 따라 영업력 확대에 경쟁이 집중되면서 건전한 영업질서가 훼손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 실적위주의 과당 경쟁은 불완전 판매, 설계사의 잦은 이직에 따른 낮은 설계사 정착률 등의 원인이 되면서 산업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설계사 정착률을 보면 우리나라 설계사는 38만 명 수준이지만 설계사의 1년 정착률은 40% 이하로 캐나다의 85%와 미국의 65%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상태임.

▒ 판매자 책임에 대한 규제 공백과 책임의식 부재로 인해 대형 판매채널이 고객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인센티브에 좌우되는 불건전한 영업관행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음.

○ 보험회사와 보험판매조직 사이의 위임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리법리에 따라 제조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

○ 우리나라 현행 판매자 책임 제도의 경우 판매자의 계약 단계의 설명의무가 추상적이고 명시적으로만 제시됨에 따라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판매책임 규정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현행 보험업법이나 시행령 상에서는 보험계약체결 권유시 계약상의 중요사항만을 설명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의향과 불일치되는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책임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판매자 책임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설명의무에 앞서 보편적인 상담의무(계약교섭 및 계약체결 전의 의무)를 부과하고 상담의무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을 판매자가 별도로 증명하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 보편적 상담의무의 경우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보험계약시 의향파악의무와 보험계약 비교추천시 해당 상품 추천이유를 기록으로 명시해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분쟁 발생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중복가입이나 위험보장에 대한 오해로 인한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이와 같은 고객의향 확인과 비교추천의무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자와 판매자의 위임관계, 즉 대리법리에서 발생하는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직접적인 판매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 간의 판매책임을 분리해 전속대리점은 기존의 위임에 의한 대리법리를 유지하는 대신 비전속 법인대리점의 경우 독립적인 판매책임을 부과함.

○ 불완전판매와 직결하는 설명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보험판매조직에게는 1차 책임(자기책임)을 부과하고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함.

▒ 한편, 보험의 역할과 위험관리 등을 홍보하는 일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올바른 보험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임.

○ 소비자의 보험이해력 수준이 낮을 경우,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구입할 경우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보험산업은 소비자가 보험, 위험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현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또한 소비자의 정보에 기초한 개별 보험상품 선택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상품설명서 개선, 판매자 교육강화 등 상품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이해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3. 중·소형 보험회사의 성장전략 모색

▒ 최근 시장 및 규제 환경 변화는 대형보험회사보다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영 여건에 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개혁에 따라 가격 설정 등과 관련한 시장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한정된 시장 안에서 보험회사 상호 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판단됨.

○ 재무 건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 추세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도 강화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하여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영 여건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 중·소형 보험회사들이 대형 보험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가 요구됨.

▒ 중·소형 보험회사들이 대형 보험회사와의 경쟁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M&A를 통해 규모의 열세을 극복하는 것임.

○ 합병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경우 규모의 열세에 따라 나타나는 상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유리할 것임.

- 금융산업은 일반적으로 규모에 따라 경영 효율성과 시장 지배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합병은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 경영권 문제가 합병의 장애요인이 될 경우 경영권을 분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임.

- 2010년 도요타 계열의 아이오이손보와 일본생명 계열의 니세이도와손보가 합병한 사례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대형 보험회사와 같은 유사한 사업모델로 경쟁하기보다는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하는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외부판매채널, 타보험회사, 타업권의 금융사 등 다양한 제휴 파트너를 대상으로 적절한 사업 모형을 강구할 경우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대규모 판매와 일반적인 소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대형 보험회사와 달리 보다 특수한 중·소형 규모의 시장을 견고한 제휴 관계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자본 제휴를 하거나 공동의 사업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방카슈랑스나 교차판매와 같은 일반적인 제휴 방안에서부터 협회 성격의 다양한 단체들에 판매와 수금을 위탁하는 형태 등 회사별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4. IFRS 준비 강화

▒ 현행 보험회계(IFRS 4 phase I)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표시하나, 매기마다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회계 개정안(IFRS 4 phase II)이 2020년 시행될 예정임.

○ Phase II는 시가평가로부터 예상되는 장래이익을 보험부채로 표시한 후 보장서비스 제공에 비례하여 천천히 인식하도록 하고, 이차역마진 등 장래 예상되는 결손은 즉시 손실로 인식하도록 함.

○ 이때, 보험부채로 표시된 장래이익은 자본과 더불어 기업가치를 보여주는 중요 정보임.

▒ IFRS 4 phase II 시행에 앞서 남은 기간 동안 부채시가평가에 적합하도록 시스템 및 인력을 확보하고, 손익관리, 보험영업,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등 업무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

○ IFRS 4 phase II 시스템은 상당한 개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필요 인력 교육과 양성에 주력

○ 3이원 방식에서 서비스마진 분석방식 등으로 손익관리체계 전환

○ 외형(수입보험료)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의 보험 영업 변화

○ 부채현금흐름에 기반한 자산운용전략 수립

○ 손익 및 자본 변동성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등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경영의사 결정의 연계를 강화

▒ 부채시가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과 이를 지원할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자금 조달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채 상시 발행 허용

▒ 한편, phase II로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장래이익은 보험부채에 포함되지만, 장래결손은 즉시 자본을 차감하므로 그 자본을 지급여력평가에 활용할 경우 보험회사 지급여력이 지금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날 것임.

○ 장래이익이 장래결손보다 큰 경우 유동성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장래결손이 보험금지급능력에 미칠 영향은 없으므로 장래이익이 빠진 phase II 지급여력평가는 왜곡될 수 있음.

○ 2016년부터 시행될 EU의 Solvency II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보험회사 지급여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래결손과 장래이익을 모두 자본으로 인정함.

▒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보험회사가 연착륙하도록 하려면 제도 설계 단계부터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제도 설계가 보다 논리적이면서도 선진국 사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규제 초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음.

# 5. 금융 융·복합화 대응 및 핀테크, 빅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노력

## 가. 금융 융·복합화 대응

▒ 인터넷 전문은행, 복합점포, 개인형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 등 금융업권 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 금융당국은 1~2개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산업자본과 은행, 보험회사 등이 컨소시움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

○ 복합점포의 경우 은행 중심 금융그룹이 계열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를 하나의 점포에 입점시키고 있음.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는 저축과 투자상품을 결합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임.

▒ 은행과 보험업의 융·복합화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업권 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며 특히 보험산업의 경쟁은 가속화될 것임.

○ 은행의 경우 기존의 온라인 뱅킹 서비스로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진입으로 경쟁압력은 높아질 것임.

○ 저금리로 예대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업 경쟁 심화는 은행의 보험 및 증권상품 판매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임.

○ 은행계 보험회사가 입점한 복합점포는 판매 상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은행계 보험회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경우 파급 효과는 클 것임.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가 도입될 경우 보험산업의 장기 저축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보험의 장기 저축 기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경쟁할 수 있는 투자형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함.

○ 장기 저축 기능과 위험보장을 결합할 경우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임.

▒ 보험상품 판매 경쟁과 업권 간 복합 상품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상품개발과 마케팅 전략의 변화가 필요함.

○ 은행계 보험회사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위험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상품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경쟁하기 위해 다양한 수수료 체계를 반영한 투자형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함.

○ 은행계 보험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방카슈랑스 채널, 온라인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다이이치 생명은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저축성 보험회사인 다이이치 프론티어 라이프를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음.

○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어야 함.

▒ 금융의 융·복합화 추세에서 보험업권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업권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보험업권의 은행업 진출이나 지급결제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 철폐가 보험업권에 더욱 중요해짐.

○ 신상품 개발, 신상품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나. 핀테크 기술 활용

▒ 보험산업에서의 핀테크 도입은 상품개발 단계부터 보험금 지급단계까지 보험업 전반의 사업방식 변화를 촉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상품개발 및 요율산출) 개인 및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해 새로운 분석이 가능한 다양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여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적정 보험료를 산출

○ (판매 및 마케팅) 신규 및 잠재 고객층을 포착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청약 등 온라인・모바일 채널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가 활성화

○ (언더라이팅) 고객의 보험가입 승낙 여부 심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시스템 도입

○ (계약 관리) 유지율 및 손해율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수익성과 고객충성도 제고

○ (보험금 지급) 보상 시스템 효율성 제고, 보험사기 탐지 및 예방 등 보험금 지급 관련 프로세스 개선

▒ 감독당국은 규제 개선을 통해 보험산업에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상품개발 및 가격 책정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여 보험산업의 핀테크 활용 유인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체계 전환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현실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함.

▒ 보험산업은 고객수요 창출, ICT 활용 및 정보보안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어야 함.

○ 고객 니즈를 파악하여 가격 차별화 및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등으로 새로운 고객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ICT 활용 플랫폼 구축, 고용량 데이터 처리 등 ICT 활용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보안사고 및 사생활 침해를 대비하여 정보보안 능력을 제고해야 함.

## 다. 내부 데이터의 전사적 통합 완료, 외부 데이터 활용 추진

▒ 기업의 데이터 분석 경쟁력 발전단계를 ① 데이터 통합 정도, ② 활용 데이터의 범위, ③ 데이터 분석조직 측면에서 도식화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 단계가 올라갈수록 데이터 통합 정도가 높아지고, 외부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이 많아지며, 분석조직의 형태가 전사형에 가까워짐.

○ 각 발전단계별로 각 요소의 수준이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으나 대표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2단계의 대표적인 특징은 BI(Business Intelligence)도구의[33] 활용임.

– 3단계의 대표적인 특징은 내부 데이터의 전사통합이고, 4단계에서는 외부 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해짐.

〈그림 Ⅲ–1〉 데이터 분석 경쟁력 발전단계

자료: 김옥기(2014), 『데이터 과학: 어떻게 기업을 바꾸었나?』에서 인용, 내용 재구성.

33) 기업전략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의미하는데, CRM, ERP 등이 대표적인 예임.

▒ 국내 보험산업은 데이터 분석 경쟁력 발전단계에서 볼 때,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음.

○ 형식을 갖춘 BI 도구를 활용하여 사업부서별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대다수 보험사의 경우 전사적 데이터 통합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외부 데이터의 활용 또한 미흡한 상태임.

○ 국내 보험산업이 데이터 분석 측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내부 데이터의 전사적 통합을 완료하고, 더 나아가 외부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부록

## 1. 보험산업 주요 지표

| 항 목 | FY2013[1)] | 2014[1)] | 2015(E) | 2016(F) |
|---|---|---|---|---|
| 수입보험료(억 원, 성장률) | – | – | – | – |
| - 생명보험 | 772,367 | 1,105,753 | 1,185,335 | 1,287,077 |
| | (-8.0%) | (1.9%) | (7.2) | (8.6) |
| - 손해보험 | 537,582 | 765,754 | 818,867 | 874,329 |
| | (4.2%) | (8.3%) | (6.9) | (6.8) |
| - 전 체 | 1,309,949 | 1,871,507 | 2,004,202 | 2,161,406 |
| | (-3.4%) | (4.4) | (7.1) | (7.8) |
| 보험침투도(%)* | | | | |
| - 생명보험 | 7.06 | 7.45 | 7.71 | 8.05 |
| - 손해보험 | 4.92 | 5.16 | 5.33 | 5.47 |
| - 전 체 | 11.98 | 12.60 | 13.04 | 13.52 |
| 1인당보험료(천 원) | | | | |
| - 생명보험 | 1,538.0 | 2,192.9 | 2,341.8 | 2,533.5 |
| - 손해보험 | 1,070.5 | 1,518.6 | 1,617.8 | 1,721.1 |
| - 전 체 | 2,608.4 | 3,711.5 | 3,959.5 | 4,254.6 |
| 생손보 구성비(%) | | | | |
| - 생명보험 | 59.0 | 59.1 | 59.1 | 59.5 |
| - 손해보험 | 41.0 | 40.9 | 40.9 | 40.5 |

주: 1)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는 2014년 1~12월 실적이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간인 2013년 1~12월 실적 기준임.
2) 보험침투도 = 총수입보험료/명목GDP
3)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 2.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 종 목 | | FY2013[1] | | 2014[2] | | 2015(E) | | 2016(F) |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생명보험 | 보 장 성 | 248,094 | 4.3 | 346,027 | 5.1 | 376,105 | 8.7 | 399,216 | 6.1 |
| | 저 축 성 | 448,383 | -17.2 | 633,355 | -5.0 | 658,863 | 4.0 | 689,985 | 4.7 |
| | 개인소계 | 696,477 | -10.6 | 979,382 | -1.7 | 1,034,968 | 5.7 | 1,089,201 | 5.2 |
| | 단 체 | 75,891 | 25.7 | 126,371 | 40.9 | 150,367 | 19.0 | 197,876 | 31.6 |
| | 합 계 | 772,367 | -8.0 | 1,105,753 | 1.9 | 1,185,335 | 7.2 | 1,287,077 | 8.6 |
| 손해보험 | 장기손보 | 315,478 | 5.6 | 444,037 | 6.1 | 469,433 | 5.7 | 494,621 | 5.4 |
| | 상해·질병 | 142,314 | 16.1 | 213,233 | 14.3 | 242,891 | 13.9 | 268,499 | 10.5 |
| | 저축성 | 89,300 | -4.3 | 117,617 | -2.4 | 108,432 | -7.8 | 104,716 | -3.4 |
| | 재 물 | 28,198 | 0.1 | 37,476 | 0.0 | 39,870 | 6.4 | 41,591 | 4.3 |
| | 기 타[2] | 55,666 | 1.1 | 75,710 | 1.5 | 78,240 | 4.3 | 79,814 | 2.8 |
| | 연금부문 | 62,991 | 6.3 | 104,809 | 34.2 | 120,788 | 15.2 | 143,752 | 19.0 |
| | 개인연금 | 31,829 | 3.1 | 41,090 | -3.2 | 40,375 | -1.7 | 40,310 | -0.2 |
| | 퇴직연금 | 31,152 | 9.8 | 63,718 | 78.9 | 80,413 | 26.2 | 103,441 | 28.6 |
| | 자동차 | 97,435 | 0.4 | 135,484 | 5.2 | 145,037 | 7.1 | 150,026 | 3.4 |
| | 일반손보 | 61,679 | 1.5 | 81,424 | -0.3 | 83,609 | 2.7 | 85,931 | 2.8 |
| | 화 재 | 2,413 | -2.9 | 3,106 | -3.6 | 3,019 | -2.8 | 2,945 | -2.5 |
| | 해 상 | 6,016 | -10.7 | 7,343 | -2.2 | 7,502 | 2.2 | 7,543 | 0.5 |
| | 보 증 | 11,238 | -4.8 | 15,152 | -0.6 | 15,797 | 4.3 | 15,966 | 1.1 |
| | 특 종[3] | 42,012 | 5.6 | 55,823 | 0.3 | 57,291 | 2.6 | 59,477 | 3.8 |
| | 합 계 | 537,582 | 4.2 | 765,754 | 8.3 | 818,867 | 6.9 | 874,329 | 6.8 |
| 전 체 | | 1,309,949 | -3.8 | 1,871,507 | 4.4 | 2,004,202 | 7.1 | 2,161,406 | 7.8 |

주: 1) FY2013 보험료는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함.
2) 2014 보험료는 2014년 1~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실적과 비교함.
3)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4)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5)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 연구보고서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 정책보고서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 |
|---|---|
| 2010-1 |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 2010-2 |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 2011-1 |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 2011-2 |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 2011-3 |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 2011-4 |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 2011-5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 2011-6 |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 2012-1 |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 2012-2 |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 2012-3 |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 2012-4 |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 2013-1 |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 2013-2 |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 2013-3 |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 2013-4 |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 2013-5 |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 2013-6 |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 2014-1 |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랑 2014.3 |
| 2014-2 |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 2014-3 |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 2014-4 |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김석영, 김진억, 최원, 채원영, 이아름, 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김경환, 김미화 2014.12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조재린, 이경아 2015.2

## ■ 경영보고서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혜은 2012.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혜은 2012.9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 조사보고서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 |
|---|---|
| 2009-10 |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 2010-1 |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
| 2010-2 |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 2010-3 |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 2010-4 |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 2010-5 |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 2010-6 |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 2010-7 |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 2010-8 |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 2010-9 |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 2011-1 |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 2011-2 |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 2011-3 |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 2011-4 |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 2011-5 |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 2012-1 |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 2012-2 |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 2012-3 | 솔벤시 Ⅱ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 2013-1 |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최원 2013. 8 |
| 2013-2 |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
| 2013-3 |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12 |
| 2013-4 |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
| 2014-1 |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 2014-2 |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 2014-3 |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전용식 2014.5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강민규, 이해랑 2014.8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오승연, 이상우, 최원 2014.8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김세중, 김혜란 2014.11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조영현, 채원영 2014.12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5.1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조재린, 김혜란 2015.2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 최창희, 정인영 2015.3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황진태, 이선주 2015.3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 김유미 2015.8

## ■ 조사자료집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원, 김세중 2014.6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 이정환 2014.8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정원석, 김동겸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 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박춘원, 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박선영, 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김미화 2015.5

## ■ 연차보고서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7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 영문발간물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 |
|---|---|
| 2009-1 |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 2009-2 |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 2009-3 |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 2009-4 |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 2010-1 |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 2010-2 |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 2010-3 |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 2010-4 |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 2010-5 |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 2010-6 |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 2011-1 |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 2011-2 |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 2011-3 |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 2011-4 |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 2012-1 |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 2012-2 |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 2012-3 |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 2012-4 |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 2013-1 |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 2013-2 |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 2013-3 |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 2013-4 |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 2014-1 |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 2014-2 |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 2014.7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이혜은 2014.10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류건식, 정원석 2015.2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Insurance Business Report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 | 법인회원 | 특별회원 | 개인회원 |
|---|---|---|---|
| 연회비 | ₩ 300,000원 | ₩ 150,000원 | ₩ 150,000원 |
| 제공자료 | - 연구보고서<br>- 정책/경영보고서<br>- 조사보고서<br>- 기타보고서<br>- 정기간행물<br>· 보험동향<br>· 고령화 리뷰<br>· 보험금융연구 | - 연구보고서<br>- 정책/경영보고서<br>- 조사보고서<br>- 기타보고서<br>- 정기간행물<br>· 보험동향<br>· 고령화 리뷰<br>· 보험금융연구 | - 연구보고서<br>- 정책/경영보고서<br>- 조사보고서<br>- 기타보고서<br>- 정기간행물<br>· 보험동향<br>· 고령화 리뷰<br>· 보험금융연구 |
| |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br>- 영문보고서 | - |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56 팩스 : (02)3775-9102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 저 자 약 력


**윤 성 훈**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동향분석실 실장)
(E-mail : shyun@kiri.or.kr)

**김 석 영**
University of Arizona 수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동향분석실 부실장)
(E-mail : skim@kiri.or.kr)

**김 진 억**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 kjo990@kiri.or.kr)

**최 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 kinowon@kiri.or.kr)

**채 원 영**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wychae@kiri.or.kr)

**이 아 름**
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lar@kiri.or.kr)

**이 해 랑**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haerang@kiri.or.kr)



정책보고서 2015-2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발행일 2015년 11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30-5 94320
979-11-85691-03-9 (세트) 정가 10,000원